

# 2021~2022년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 내재적 발전론을 넘어 구조사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과도기적 노력들 -

최 주 희\*

- I. 머리말
- II. 분야별 주요 저술과 연구동향
- III. 맺음말

### I. 머리말

이 글은 2021년부터 2022년에 걸쳐 국내에 발표된 조선후기사의 주요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연구회보(193호~200호)에 수록된 조선시대 연구논저를 전수 조사하고, 이 중 임진왜란 직후부터 개항기까지를 다룬 연구논저를 따로 정리해 주제별 연구 동향을 분석했다.<sup>1)</sup> 그 결과 조선시대를 다룬 2,640여 편

---

\* 덕성여자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사학전공 조교수

1) 2021년에 발표된 조선후기 회고와 전망(허태구, 2021)에서는 임진왜란부터 개항기까지를 범주로 하였으나, 조선후기는 통상적으로 임진왜란이 종식되고 전후복구가 진행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하고 있고, 조선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임진왜란 직후부터 19세기 말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 하에 『한국사연구회보』 193호(2021년 4월호)부터 200호(2023년 1월호)에 ‘조선시대’로 분류된 연구논저를 정리하고 임진왜란 직후부터 개항기에 이르는 시기의 논문을 추출해 정치제도사, 사회경제사, 사상문화사, 대외관계사, 기타로 분류했다. 각 논저의 편수를 정

의 연구논저 가운데 조선후기 논저는 총 1,600여 편에 달하며,<sup>2)</sup> 이중 박사학위논문은 71편(사학과·국사학과 소속 논문 20편), 저서·역서류는 98권, 학술논문은 1,438편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 집계되었다.

조선후기 연구논저의 정리과정에서 확인된 점은, 첫째, 조선전기에 비해 조선후기 연구성과가 압도적으로 많고, 둘째, 사상사·문화사 분야의 연구성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 반해, 경제사 연구는 2019~2020년에 이어 가장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sup>3)</sup> 셋째, 사상사·문화사 분야의 연구논저들에는 미술사학·민속학·한문학·국어학·고문헌학·건축학·한의학 등 인접 분야의 연구성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 중에는 사료 발굴과 최신 연구방법을 적용해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 논문들도 확인되는 점이다. 다만 매년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연구논저가 출판되고 있는 데다가, 분야별 성과들이 다소 폐쇄적으로 유통, 소비되기 때문에 방대한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수렴해 조선후기 시대상을 재정립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못하다. 17세기 이래 조선의 사회구조와 운영원리가 어떻게 재편되고, 이것이 19세기 내외적 위기요인에 의해 한계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 총체적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입론의 근거가 되는 실증 연구의 다양한 퍼즐을 상호 교차해 맞춰보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과

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연구논저의 진수를 분류, 정리하면서 취보에 잘못 산입된 목록을 일부 수정해 데이터를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다만, 아래 표는 학계의 통념을 고려해 분류한 것이기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고, 분야별 경향성을 짚어보는 참고자료로 활용해주시기를 바란다.

분류 논저	정치제도사		사회경제사		사상문화사		대외관계사	기타
	정치사	제도사	사회사	경제사	사상사	문화사		
논문 및 저서	129 (8.0%)	145 (9.0%)	207 (12.9%)	87 (5.4%)	456 (28.4%)	427 (26.6%)	138 (8.6%)	18(1.1%)
계	274(17.0%)		294(18.3%)		883(55.0%)			

- 2) 조선시대 전체를 다룬 연구논저는 395편으로 집계되었으며, 여기에는 박사학위논문 36편(사학과·국사학과 소속 논문 7편), 저역서 79편, 학술논문은 280편이 포함되었다.
- 3) 허태구, 「2019~2020년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사료와 실증의 디미에서 탈출하기」 『역사학보』 251(서울, 역사학회, 2021), 138쪽.

정을 거쳐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분야별 주요 성과를 정리하는 작업과 함께, 조선 후기 사회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는 인접 분야의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II. 분야별 주요 저술과 연구동향

### 1. 정치·제도사

#### 1) 정치사

정치·제도사 분야에는 총 274편의 연구논저가 발표되었으며, 그중 정치사 분야의 논저는 129편으로 확인됐다. 왕대별 국정운영의 성격과 정책 시행의 의미를 밝히는 논문과 정치세력으로서 붕당·가문·관료 개인의 정치활동을 검토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됐다. 시기별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광해군대 정치사 연구는 한명기(2021)와<sup>4)</sup> 윤여석(2022), 권은나(2022)의 논문이 주목된다. 한명기는 명이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지연시키고, 선조 급서 후에도 왕의 자질을 문제 삼아 국왕 책봉을 미룸으로써, 광해군은 재위 내내 ‘버겁고 두려운 명’과 ‘원망스러운 명’ 사이에서 반명 감정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해군은 재위 10년(1618) 후금 공격에 동참하라는 명의 요구를 회피하는 한편, 심하전투 패전 이후 거둬진 명의 지원군 요구를 거부하고 후금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윤여석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명이 조선의 정치와 왕위 계승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려 하면서 광해군의 세자책봉을 지연시켰으나, 선조 죽음 이후 왕위에 오른 광해군이 명의 사문사(査問使)까지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명외교를 펼쳐 자신은 물론 세자와 공빈 김씨까지 책봉받는 결과를 얻

4) 대외관계사 항목으로 분류했으나 주제가 밀접해 정치사 분야에서 소개한다.

어냈다고 평가했다. 권은나는 광해군대의 정치를 반역사건의 수습을 통한 ‘공포 정치기’로 규정했다. 그에 따르면, 광해군대 발생한 반역사건은 총 10건으로 그중 왕위교체를 직접적으로 시도한 사건만 7건에 달했으나, 광해군은 반역사건을 신속히 수습하기보다 반대세력을 천천히 축출해나감으로써 권력을 안정시키고자 했으며, 그 결과 재위 내내 여러 사회적, 정치적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장정수(2021a)는 ‘중립외교’의 상징인 강홍립을 ‘항로(降虜)·인적(引賊)·적신(賊臣)·역신(逆臣)’으로 평가하는 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역사적 결과물이라는 지적에 대해 오랑캐에게 항복한 혐의, 적을 선도해 모국을 침공한 혐의, 후급에서 후대를 받은 혐의 등은 당대인의 시각에서 충분히 배척받을 만한 죄였으며, 강홍립이 정묘호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하지만, 당대인들로서는 충분히 오해받을 만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인목대비 폐위 논쟁과 인조반정의 성격문제에 있어서는, 계승범의 저서 『모후의 반역-광해군대 대비폐위논쟁과 효치국가의 탄생』(2021)의 출간을 계기로 논의가 재점화되어 오수창의 비판(2022)과 재비판(2023)이 이어졌다. 계승범은 광해군대 인목대비 폐위 논쟁을 국왕에 대한 ‘충’과 모후에 대한 ‘효’ 이념이 충돌한 사건으로 보고, 계해정변[인조반정]을 충에 대해 효가 최종 승리한 사건으로 평가했다. 계승범의 문제의식은 대비가 역모에 가담했을 때 자식인 국왕은 대비를 어떻게 대우·처리해야 하는가에 있었고, 광해군 스스로 중국의 고사에서 공의(충), 사의(효) 논쟁을 검토해 대비 폐위의 명분을 확보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조반정을 계기로 광해군은 폐모를 저지른 죄인으로 전락했으며, 광해군대까지 충과 효를 강조해 오던 조선은 반정을 계기로 효치를 절대 가치화하는 유교국가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수창은, 인목대비는 광해군의 계모이기 전에 선왕의 배우자로서 국왕의 폐립을 결정짓는 절대적 위치에 있었으며, 대비와 국왕은 그 자체로 군신관계에 있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인목대비 폐위 논쟁의 핵심은 충과 효의 문제가 아닌, 대비의 지위를 부정하는 행위가 곧 반역이 될 수 있는 ‘충역의 문제’라

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조반정 역시 불효를 행한 광해군을 무력으로 교체한 사건이 아니라 대비에 대한 반역 상황을 해결한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계승범의 답변(2022)과 오수창의 재비판(2023)이 이어지는 가운데, 논쟁이 처음 제기됐던 『역사비평』의 편집위원회 차원에서 최근 입장을 발표했다. 편집위원회를 대표해 정다함(2023)은 계승범과 오수창의 논쟁을 정리하면서, 해당 논쟁을 인조반정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근대성 논쟁의 축소판’으로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계승범은 인조반정을 계기로 충보다 효를 강조하는 독특한 정치구조가 조선에 형성되었고, 이러한 정치적 특수성이 한국의 근대국민국가 형성에 저해요인이 되었다고 보는 입장인 반면, 오수창은 인조반정을 조선의 정치질서와 가치기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대응방식으로 보고, 사대부의 이같은 정치행위로 조선의 유교적 전통이 축적되어, 한국 정치의 근대적 맹아로 작동하게 됐다고 보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계승범의 저서로 촉발된 인조반정의 성격 논쟁은 조선후기 고도화된 ‘효치’ 이념을 정치계보화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해석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효치를 통해 신료들의 충을 지속적으로 견인한 후대 국왕들의 정치행보를 감안하면, 효와 충을 정치사적으로 대립, 긴장 관계에 있는 개념으로 설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 효치를 한국정치의 특수성으로 설명한다 해도, 이것이 과연 근대국민국가 건설에 방해요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해명이 필요하리라 본다. 관련하여 김한신(2022) 역시 반정 이후 인조가 명황제로부터 책봉을 받기 위해서는 인목대비의 공식적인 주청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강조하며 인조가 즉위 후 권력 장악을 위해 인목대비의 지위와 명예를 적극적으로 회복시켰음을 강조했다.

17세기 후반 대외정세가 안정화되면서 중앙의 정치구도 또한 새롭게 재편되었는데, 이를 척신의 관점에서 검토한 연구도 주목된다. 윤희민(2021)은 효종·현종·숙종대 국정운영에 참여한 청풍김씨, 광산김씨, 여흥민씨와 같은 척신그룹의 정치적 역할을 통시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척신은 왕

실의 일원이자 관료의 위치에서 양측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왕실의 세력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관료집단을 제어하거나 급기야 왕을 제압해 권력을 농단하는 위치에 있던 자들로 규정하였다. 특히 17세기 후반 ‘척신’이 등장하게 되는 시점을 효종대로 보고, 인조의 뒤를 이어 즉위하게 된 효종이 정통성 시비 문제를 해소하고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척신을 조력자로서 등용한 것으로 진단했다. 산당의 지속적인 견제와 비판 속에서도 국왕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척신들로 인해 왕권이 안정될 수 있었으며, 이로써 숙종대에는 국왕 스스로 척신의 도움 없이 환국을 단행하는 정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17세기 정치사를 봉당정치 혹은 한당·산당의 구도로 설명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왕권강화의 배후세력인 척신에 주목한 점에서 의미가 큰 연구이다. 다만, 조선전기와 대별되는 조선후기 척신세력의 특징이 설명될 필요가 있고, 탕평정치기의 국왕 역시 왕권강화에 척신세력을 적극 활용한 점을 고려해 척신정치에 대한 장기적 관점과 전망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김인경(2021)은 17세기에 형성된 정치세력으로서 ‘경주김문’으로 불리는 학주 김홍욱 가문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김홍욱의 아들인 김세진·김계진 계열의 후손들은 서로 다른 정치 행보를 보이는데 장자 김세진계는 경화사족으로, 차자 김계진 계는 호론-벽파 계열 재지사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았다. 또 김세진계 중 영조의 부마 김한신을 중심으로 한 가계는 ‘월성위 가문’으로 칭하고, 김계진계 중 정순왕후 간택을 계기로 외척으로 성장한 가계는 ‘김한구 가문’으로 칭하게 되는 양상을 밝혀냈다. 정치세력으로서 특정 가문의 형성과 분화를 통시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왕실혼이 가계(家格)의 형성,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향후 다른 별열 가문들과의 비교 사적 검토를 통해 조선후기 세도가문들의 정치 지향과 가계 유지 전략을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근호(2021)는 17~18세기 중앙 정치세력의 성격을 살피기 위해 12건의 공신 녹훈을 검토했다. 그에 따르면, 광해군대는 정치적 반정과 이를 주도한 대북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재고하기 위해 네 차례 공신 녹훈을 단행했으며, 인조대는 반정의 성공을 기리기 위해 정사공신을 녹훈했으나,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이괄의 난이 발생하자 난을 진압한 후 다시 진무공신을 녹훈했다는 것이다. 이후 숙종대 보사공신, 경종대 부사공신, 영조대 분무공신의 녹훈 역시 당대 정국 상황을 배경으로 추진되었음을 밝혀냈다. 국왕이 공신녹훈을 주도하더라도, 당대 정국의 주도세력과 일정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는 지적이다. 관련하여 박기훈(2021)은 이괄의 난을 진압하고 도성을 수복해 진무공신에 녹훈된 27명의 장수들 중 정묘호란 당시 서북지역 방어에 참여한 자들은 분전 끝에 사망하고 도성에 머무른 자들은 후금군을 상대로 도성을 수비한 공을 인정받아 요직을 맡게 되는 정치적 행보를 상세히 밝혀냈다. 고민정(2021b)은 『공신회맹록』과 『충훈부등록』을 바탕으로 인조~영조 대 공민회맹제에 참여한 적장자손이 93.4%에 달하는 점을 밝혀내 18세기까지 공신가의 정체성이 정부의 관리, 지원 하에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음을 실증했다.

나영훈(2022)은 숙종대 초반 근기남인의 분화과정을 ‘청남’과 ‘탁남’으로 구분해 온 흐름을 재고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근기남인을 청남·탁남의 구도로 설정한 자료는 경종대 이후의 당론서나 『숙종실록』의 사평에 불과하며, 청남과 탁남으로 분류된 가문들 사이에 사승, 통혼, 교유관계가 다수 확인되는 점을 지적했다. 향후 청남-탁남의 후손들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가는지 추적하는 한편, 근기남인의 정치성향과 학통, 혼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들의 분화과정을 새롭게 조망한 연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18세기 근기남인의 정치사상을 군신관계론의 측면에서 정리한 이동화(2022)의 논문도 주목된다. 그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남인의 정치사상을 군주권 강화론으로 단정짓거나, 주자학적 도덕정치론에서 벗어난 논의로 이해하는 점을 문제제기하면서, 17세기 후반 예송과 환국의 정치환경 속에서 남인계 학자들은 시비결정론자로서 군주의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로써 ‘군주-재상-사’라는 구도를 재정립하고 부자의 의리로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18세기 중후반에는 시비판정자로서의 국왕의 권한은 인정하지만 지나친 군주권 행사는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18세기 말~19세기 초 재제공과 정조가 연이어 사망하면서 근기남인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었다고 진단했다. 이 시기 근기남인들은 그들이 향촌에서 도덕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곧 중앙정치에 참여하는 것임을 자각하는 한편, 도덕성을 함양한 군주가 향후 정치의 주도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이는 결국 정약용의 『경세유표』 저술에 관철된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국왕별로는 숙종대 정책과 현실 인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저서가 출간되었다. 숙종 탄생 600주년을 맞아 공동연구 형식으로 간행된 『숙종대 정국운영과 대외관계』(이근호 외, 2021)에는, 숙종대 태조·태종, 정종, 단종의 추숭사업이 갖는 의미와 숙종 중기 한국의 흐름 속에 대두한 왕세자 보호론, 숙종의 명사(明史) 진강을 통해 본 숙종의 명말 인식, 숙종의 독후시 제작의 의미, 지도를 통해 본 숙종대 조선-청 간의 정계와 변경 인식, 숙종대 대일정책의 성격에 관한 논고가 실렸다. 이밖에 숙종대 중앙정책을 꾸준히 검토해오고 있는 김우진(2021) 역시 숙종이 각 당에서 희망하는 문묘 대상자를 승출입시키는 시혜를 통해 국정 파트너에 대한 협치와 화합의 메시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다.

경종대는 국왕의 재위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영조대 정국동향을 파악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는 시기이다. 최성환(2021)은, 영조대 신임의리 논쟁이 세계의 즉위를 방해한 인물에 대해 토역의 범위를 확정짓는 문제였기에 ‘노론의 충’, ‘소론의 역’으로 결론지어졌음을 분명히 했다. 관련하여 이경동(2022a)은 영조 2년(1726)에 노론사대신을 배향하기 위해 설립된 시충서원이 신임의리에 대한 평가의 번복으로 휘철, 복설되는 과정을 겪으며 노론계 중심서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밝혀냈다. 영조대 노론의 정치활동에 대해 허태용(2021a)은 『영조실록』의 편찬 과정에 참여한 노론계 인물들과 『영조실록』에 수록된 무신란 기록을 분석하여 정조대 노론측의 정치의리를 검토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노론은, 무신란 진압을 영조의 결단과 황천·조종의 돌보심 덕분으로 평가하면서, 무신란 진압과정

에서 소론측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고, 특히 이광좌·이삼·윤순은 위험한 인물이며 무신란의 근원은 유봉휘까지 소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이러한 논론의 의리가 『천의소감』에 이어 『영조실록』에도 반영되었다고 지적했다.

영·정조대는 대민안정책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소개됐다. 정호훈(2021)은 무신란 이후 군주를 친애하고 관료를 신뢰하는 도덕의식을 진작시키기 위해 중앙에서는 『삼강행실도』, 『이륜행실도』를, 지방에서는 『경민편』을 활용해 교화해 힘쓴 사실을 밝혀냈다. 윤정(2022) 역시 무신란에 따른 이념적 대책으로 영조대 이순신 사적을 현창하고 후손을 탁용한 사례를 검토했다. 김호(2021)와 김정운(2021b)은 ‘방역’이라는 시의성 있는 문제의식으로 1786년 홍역과 1799년 전염병 대유행 당시 정조의 방역대책을 검토했으며, 김호는 특히 정조의 방역대책을 ‘안전과 ‘호혜’의 키워드로 특징지었다. 관련하여 박범(2021c)과 김미성(2022c)은 재해와 기근이 닥쳤을 때 정부의 재난대응방식에 주목했다. 박범은 18~19세기 재해발생 지역에 위유어사를 파견하는 방식을 제도사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김미성은 정조대 수해 이재민에 대한 정부의 보고방식을 체계화하고 홀전을 시행하는 방식을 규명했다. 이외에도 영·정조대는 문화사적 연구들이 다양하게 축적되어 온 가운데, 최근에는 궁궐의 공간 운용에 담긴 정치사적 의미를 검토한 연구가 발표됐다. 이민아(2022)에 따르면, 영조는 정조를 세손으로 책봉한 직후 창덕궁에서 경희궁으로 이어해 사도세자를 더이상 세자로 인정하지 않는 뜻을 표출한 반면, 정조는 문묘세가 탄생하자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이 물리적 거리에 기인했다고 보고 동궁의 권역을 국왕의 편전인 희정당 가까이로 옮겨 중희당을 새롭게 조성했으며, 사도세자가 죽은 시민당 일대의 흔적은 지우고자 했다는 것이다.

한편 영·정조대 관료그룹에 있어서는 사회관계망 분석기법을 활용해 번암 체제공의 교유관계를 분석한 권기석의 연구(2022)가 주목된다. 그는 60권 27책에 달하는 『번암집』을 바탕으로 체제공이 교유한 인물들의 밀접성이 친인척-사

우·관료 순으로 약해지며, 남인 및 근기출신과의 밀접도가 높고, 소론·노론·원지 출신과의 밀접도가 낮아지는 양상을 도출했다. 필자도 지적인 바와 같이 다소 예견된 결론이기는 하지만, 정치사 연구에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논문이다.

19세기 연구는 순조대부터 고종대까지 왕실 및 세도가의 정치활동, 천주교 박해, 홍경래의 난, 임술민란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로 채워졌다. 김정자(2022; 2021)는 정조 후반~순조 초반의 『추안급국안』의 기사를 바탕으로 신유박해 당시 강이천의 추국사건이 천주교 박해사건이 아닌, 벽파 정권이 흥낙임·은언군을 사사하고, 안동김문을 견제하며 정조 측근 세력을 논척하기 위해 벌인 무고사건이었음을 지적했다. 또 순조대 추국사건의 흐름 속에서 안동 김문과 시파 세력을 중심으로 정국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추적했다. 임혜련(2022)은 정조 사후 수렴청정의 시행과 국왕의 즉위례의 관계를 검토해 '수렴청정'이 국왕의 즉위례 과정에서 함께 시행되었음을 밝혀냈다. 국왕이 '사위의(嗣位儀)'를 마친 후 종친 및 문무관료들을 이끌고 수렴청정이 행해지는 편전으로 이동해 대비에게 하례하면 대비가 즉위교서와 수렴청정 교서를 반포하는 것으로 예가 마무리되며, 그에 따라 즉위례의 공간도 변화하게 된 점을 실증했다.

19세기 민란에 있어서는 홍경래의 난과 1862년 임술민란을 각각 재검토한 강석화(2022)와 송찬섭(2021)의 연구가 주목된다. 강석화는 당시 평안도 정주성 전투의 시말을 분석해 반군의 군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추적했으며, 송찬섭은 1862년 당시 임술민란이 일어난 70여개 고을에 대해 해당지역의 부세운영 상황과 지방관의 대책, 농민군들의 협상력을 고려해 저항의 강도와 수습과정이 상이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점을 피력했다.

고종대에 관한 연구는 한보람(2022), 장영숙(2022)의 논문이 주목된다. 한보람은 고종 즉위 후 흥선대원군을 정계에서 배제하고 고종이 친정을 선언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기존 집권세력의 대표인 이유원과 시무개혁 세력의 대표인 박규수의 공조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장영숙은 고종과 대원군의 반목과 갈등

을 고종 친정기-임오군란 수습기-갑오개혁기로 나누어 검토했다. 특히 갑오개혁 당시 대원군이 청군과 내통하고 동학농민군을 교사해 일본을 협공하도록 한 계획이 탄로나 정계에 퇴출된 후, 일본이 그를 명성황후 시해사건의 후속 조치에 활용해, 명성황후 시해가 마치 대원군과의 알력에서 파생된 사건인 것처럼 포장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광해군대부터 고종대에 이르는 주요 정치사 논저들을 살펴보았다. 17세기 전반기는 광해군과 인조반정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야기된 데 반해, 17세기 후반~18세기의 대외적 안정기에는 공신·척신 그룹의 성격과 국왕의 시책이 갖는 의미를 천착한 연구가 많았으며, 왕실의례와 서적 간행, 궁궐 운용과 같은 문화사적 연구도 다양하게 발표됐다. 아쉬운 점은 19세기가 갖는 정치사적 중요성과는 별개로 흥경래의 난이나 임술민란과 같은 농민항쟁의 성격을 재검토하는 논의들이 활발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 2) 제도사

제도사는 관직·인사제도, 형법제도, 군사제도 등 국정운영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과 운영 양상을 검토한 연구들로 범주화하였다. 관련 논문은 145편으로 확인된다. 관직·인사제도에 있어서 김현지(2022)는 국왕의 증시(贈諡) 행정의 변화를 검토했다. 그에 따르면, 본래 증시는 집안의 청시(請諡)가 있어야 하는데, 선조~철종대 집안의 청시 없이도 사림의 공론으로 증시된 인원이 총 1,105명의 증시 인원 가운데 152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특히 숙종대에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재평가와 충신 현창에 시호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증시 자격이 완화되고 대상이 다양해졌음을 밝혀냈다. 한편 황유나(2022)는 순조대 김조순을 필두로 한 노론 북당에 정치권력이 편중되는 상황에서, 순조가 소대와 별강을 통해 권력의 누수를 막고 국왕을 보좌하는 신료의 역할을 강조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영조대 전랑법 개정과 정조대 승정원에 관한 논문도 주목할 만하다. 김현정(2022)은 16세기 이후 자대권과 당하관 통정권을 통해 이조전랑의

정치적 위상이 커지면서 전랑직을 둘러싼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는 한편, 전랑의 직무 대부분을 가낭청을 차출해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영조 17년(1741)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랑의 자대권과 당하관 통청권은 물론, 전랑의 특권 전반에 개혁이 단행되었음을 밝혀냈다. 특히 그는 영조대의 전랑권 개혁이 탕평정치의 실현뿐만 아니라 실무관료로서 전랑의 직무를 환기시키는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조선후기 내의원 의관의 직임과 인사실태를 분석한 박훈평의 연구(2022)와 영조대 의금부도사의 직제와 구성을 검토한 한바다의 논문(2022), 정조대 규장각 직제를 분석한 정상준의 논문(2022), 관상감 검교수 제도의 정비과정을 분석한 경석현의 논문(2021) 등도 중앙관제와 인사 운영의 이해를 풍부히 하였다. 한바다는 의금부도사의 직책을 음관 수령직에 제수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직 중 하나로 평가하면서 실제 영조대 의금부도사의 거관 경로에 수령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박훈평과 경석현은 각각 내의원과 관상감의 직제 변화를 검토하면서 ‘검직’에 주목했는데, 특히 박훈평은 내의원의 경우 ‘검어의’, ‘가차내의’를 통해 정원이 늘고, 19세기 들어서는 관례적 승진과 특별승진이 빈번해지는 등, 특권화의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민주(2021)는 18세기 승정원의 승지직 선발 규례와 의망, 제수실태를 검토하는 한편, 정조대 승정원의 빈번한 체차 문제와 근시기구인 규장각과의 관계설정을 위해 승정원의 고사를 재편찬하고, 육방승지가 공사를 가지고 입시하게 하는 ‘지공사입시’를 정례화한 점을 밝혀냈다. 이로써 승지는 정조대 이후 실무관직의 성격을 띠게 된다고 보았다. 관련하여 명경일(2021)은 조선후기 1차 사료라 할 수 있는 『승정원일기』의 구성과 편찬과정을 고찰하였다. 그에 따르면 승정원이 처음 설립되었을 당시 일기의 구성은 승정원의 사무에 관한 간략한 기록을 담은 형식이었지만, 세조대 주서가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면서 입시설화(入侍說話)를 등재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임진왜란 당시 주서 외에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를 차출해 변란에 관한 기록을 전담시키면서 이

후 사변가주서의 직무는 사변일기를 찬록하는 것이 되었으며, 『승정원일기』의 구성도 일반 주서의 일기 외에 사변일기가 추가되는 변화를 겪었다고 했다. 조선 후기 일차사료인 『승정원일기』의 편찬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과거제도에 대해서는 『정사책』을 통해 음관의 초입사 경로와 제도를 검토한 박현순(2021)의 논문이 주목된다. 그는 조선전기 음자제취재(蔭子弟取才)로 이루어진 음관직 초입사가 명종대 생원, 진사 임용으로 변화되면서 생원, 진사 임용이 정례화되었으며, 음관의 초입사직 의미는 이조판서가 전적으로 담당할 점을 밝혀냈다. 정지연(2021)은 고종대 문과 정시를 검토한 결과 갑오개혁 이전까지 총 32회의 정시가 치러졌는데 초시를 치르지 않은 제초시정시(除初試庭試)로 치러졌으며, 9번의 별시에서는 모두 회강이 생략된 점을 밝혀냈다. 한편 고종대 후반으로 갈수록 여러 종의 과거와 성균관 과시가 연이어 선행됐고, 성균관 과시에서 대과 및 소과 관련 은사가 내려짐으로써 인재선발의 중심추가 성균관 과시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관련하여 여영기(2021)는 조선 후기 관학 기재 생제도를 검토하면서, 조선 후기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부족한 지방 유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기재생을 각도에서 추천, 선발해 운영했으며, 교육 과정 면에서 전강이나 식년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경학 공부를 장려한 점을 지적했다. 또 17세기 이후 성균관 기재생은 총 40명을 정원으로 하여, 성균관 하재생 20명 외에 사부학당 거재유생 20명을 관학 기재생에 포함시켜 통합 관리한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이밖에 김경용(2021)은 『국조연방』이라는 자료를 통해 그간 알려지지 않은 1735년 식년 감시의 입격자들 다수의 신원을 복원해 입격자의 선대·후대 관계망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형법제도에 있어서 심희기(2021)는 『완영일록』과 『공사수록』을 토대로 19세기 관찰사의 사법행위 절차를 살육 사안 이외의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한 반면, 문준영(2022)은 19세기 사형 판결 없는 살육 죄인의 처리와 징벌 양상을 검토했다. 정진혁(2022)은 17~18세기 추국청의 압슬형·낙형 시행의 추이를 고찰했

으며, 차인배(2021)는 포도청의 난장(亂杖)의 사례를 통해 치도형의 운영과 폐지 과정을 규명했다. 이밖에 조운선(2021)은 의금부의 의율(議律) 업무와 왕옥(王獄)의 기능을 살폈다.

한편 군사제도에 있어서는 중앙 및 지방군제와 방어체계, 군기, 무관의 인사 제도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장정수(2022)는 조선후기 군영제가 성립되는 배경으로서 인조대 어영사·총유사의 설치과정을 검토했다. 그는, 어영사가 후금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반정의 초기 기조를 보여주는 기구라고 한다면, 총유사는 이괄의 난 이후 도성방어에 주력하려는 조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기구라고 평가했다. 김현동(2021) 역시 어영청의 창설과 제도적 정비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했다. 그에 따르면, 어영청은 초기 편제와 지휘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으나, 효종 초 북벌을 위한 군비증강 차원에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고, 현종 연간에 20,000명의 정군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했다. 다만 인조대 어영청의 번상군에게 지급할 급료를 호조에 의지하면서 재정부담에 따른 정번이 빈번해졌고, 이로 인해 효종 초 어영군 급료를 어영청에 직접 납부하는 관납보를 설치해 재정을 해소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17세기 어영군은 궐외 입직과 순라·호위·유도·착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6차례의 궐외 입직과 2차례의 합조에 참여하는 입역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았다.

송기중(2022; 2021)은 임진왜란 당시 교동에 설치한 통어영의 운영실태를 검토하였다. 그에 따르면, 통제영은 순수 군영이었던 반면, 통어영은 군영이자 군현으로서 통제영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규모였으며, 세입의 20%를 중앙에 상납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작은 규모로 통어영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북방의 적에 대한 통어영 수군의 역할이 통제영 수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던 데다가, 통어영은 섬에 위치했기 때문에 물자 및 인력 동원에 있어서도 제약이 컸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제영에 대해서는 군선 건조를 위해 소나무를 기르는 양송처를 별도 관리한 양상을 검토했다. 김현구(2022)는 통제영의 해유문기와 『통제영중기』, 『통제영절목』을 중심으로 18세기 후반 통제영의 군비 창고 현황과 8전선에

탐재한 군기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17세기 후반~18세기 초에 설치된 통제영 창고들은 120여칸에 달했으며, 각 전선에 화력 비중이 높은 4·5호 불랑기 외에 대형 1~3호, 소·중유불랑기 등이 탐재된 사실을 밝혀냈다. 박진철(2022) 역시 중기를 통해 19세기 동래부의 군비와 봉수 실태를 검토했다.

이강원(2021; 2022)은 영조대 도성방어체계 내에서 북한산성의 위상을 입보 처가 아닌 도성배후기지로 전환하고, 도성사수를 위해 탕춘대성 내 총융청을 이설해 방어체제를 재정비한 점을 밝혀냈다. 이와 연동하는 조치로 그는, 북한산성과 짝하는 경기 서북방어체제의 재편을 위해 영조대 장단 방어영을 파주로 이설한 점도 밝혀냈다. 같은 맥락에서 신영문(2021)은 독산성의 위상 변화를 고찰했다. 보장처 중심의 도성방어체계가 무신난 이후 도성사수론으로 전환되면서 외곽방어체계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고 독산성의 위상 역시 약화되었으나, 정조대 수원 화성의 개발로 군사적 중요성이 재부각되었고, 정조 사후로는 다시 전략적 활용도가 감소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정해은(2022b)은 정조가 재위 20년(1796) 훈련원 건물을 정비하고 절목을 제정한 점에 주목하면서, 당시 훈련원의 정비가 금군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지적했다.

지방군제에 있어서는 태안 신진도 고가에서 안흥진과 수군에 관한 고문서가 발굴됨에 따라 안흥진의 운영과 안흥첨사의 재임실태를 분석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진호신(2022)은 고문서가 발굴된 고가를 안흥진 수군 관리를 위해 지어진 특수건축물로 규정하고, 수군 군적부를 비롯해 균형미를 환자로 대여해준 문서, 군인전(軍人錢)을 충청도 각 지역에 부과한 문서 등을 소개했다. 문광균(2021)은 효종대 이후 안흥첨사로 부임한 140명의 재임실태를 분석해 안흥첨사의 임기는 법적으로 30개월이었으나 실제 평균 재임기간은 약 17개월이었음을 실증했다. 또한 임기가 끝난 후로는 약 40%가 인사발령 대기 상태인 부호군에 제수되었고, 26%는 오위장, 겸사복장 등 중앙의 정3품 지휘관에 임명되었으며, 20%는 외관직에 승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밖에 안흥항 굴항 실패나, 이양선 보고 대치 미흡 등의 문제로 파직·정배·충군 등에 처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무관의 인사제도에 있어서는 우인수(2022a)와 방범석(2021; 2022)의 연구가 주목된다. 우인수는 16세기 후반 북방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무과급제자들을 1년 동안 변경지역에서 복무하게 하는 의무부방제가 시행되었으나, 대외정세가 안정되면서 부방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자 영조대에는 무과급제자들의 의무부방제를 폐지하고, 부방군을 위해 수취해온 제방미도 징수대상에서 삭제하게 되는 정황을 검토했다. 방범석은 『등단록』을 통해 대외정세가 안정되는 18세기부터 군영대장의 임기가 짧아지는 경향을 밝혀냈다. 또 인조~철종 시기 문반 출신 군영대장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70%가 재정기구의 장 이력을 보유한 자들이었으며, 특히 삼군문 대장과 재정기구장과의 일치율이 높은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조선후기 전선, 군기에 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발표됐는데, 전선에 있어서는 조선후기 거북선의 종류와 특징을 밝힌 김병륜의 연구(2021)와 1860~70년대 조선의 포가(砲架) 제작 방식과 일본의 대포 유입 경위를 검토한 이재정의 연구(2022), 조선후기 열무와 전투에 쓰인 대기치를 고증한 제송희·김영선의 연구(2021) 등을 통해 조선후기 군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 2. 사회·경제사

사회·경제사 분야의 논문은 총 294편의 논저로 파악됐다. 이중 사회사 분야 논저는 207편에 달하는데, 이를 신분과 가족·친족, 향촌·지역사회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하위주제를 명명해 분류하는 작업을 거쳤다. 사회사 분야는 최근까지도 민간자료의 수집을 통해 다양한 사례연구가 발표되고 있으며 거시적인 신분 구조와 사회상을 제시하기보다, 조선사회를 살아간 다양한 신분계층의 입체적인 모습을 재현하고, 국가와 향촌사회에 구성원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세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연구들이 발표됐다.

### 1) 사회사

신분제에 있어서는 개별 신분계층의 존재양상을 규명한 연구들이 다수를 이

른다. 특히 사족집단에 있어서는 조선후기 경상도 재지사족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 두 편이 발표됐다. 백지국(2022)은 조선후기 경상도 창원부의 재지사족에 관해, 박소희(2022)는 경상우도의 사족 분화 양상에 대해 통시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박소희는 남명학파라는 학문적 동질성과 복인으로서의 정치 성향을 지닌 경상우도 사족들이 인조반정 이후 부침을 겪으면서 정운을 중심으로 재결집하거나, 집권세력인 서인·남인에 편승해가는 과정을 세밀히 검토했다. 재지사족이 학문적, 정치적 정체성을 어떻게 전환, 유지시켜가는지를 상세히 추적함으로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상적, 정치적 분화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논문으로 생각된다.

조선후기 무인층에 대해서는 선생안과 문집류를 통해 그 존재양상을 밝힌 연구들이 발표됐다. 신재용(2021)은 조선후기 대표 무인가문이라 할 수 있는 원주원씨 충장공 원호가 무반가임에도 문무과급제자를 다수 배출하고, 주요 가문들과 혼맥을 형성해 결국 문반가문으로 성장해가는 양상을 밝혀냈다. 권기중(2022)은 『강무당선생안』을 통해 경주최씨와 같은 지역 내 최고 향리가문에서 행수, 병방과 같은 고위 무임직을 지속적으로 차지하는 양상을 확인했다. 정우봉(2022)은 『금석직첩』에 기재된 무임층의 존재양상을 규명했으며, 강경운(2021)은 무반가로 알려진 결성 담양전씨가 소장 고문서의 현황을 분석해, 무반가의 생활양식과 가계경영의 실태를 고찰했다. 담양전씨가 소장 고문서에는 토지매매 문기 뿐 아니라 공인문기도 포함되어 있어, 무반가의 가계경영에 공인권도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얼에 대해서는 경주 여주이씨 옥산동 동계를 바탕으로 서얼들이 마을 개발을 주도한 사례 연구(정수환, 2022)와 경상도 대구부 수동면 지산마을이 중화양씨 서계 동성촌락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을 밝힌 사례 연구(김미영, 2021)가 참고된다. 조선후기 무반, 서얼과 같은 중간계층의 사회적 진출이 중앙정계와 향촌 내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연구들이다.

권기석(2021)은 『의역주팔세보』를 바탕으로 ‘의학가문’의 인적구성과 계보

를 추적함으로써 기술직에 종사한 중인들의 직역이 가문단위로 세전되는 양상을 밝혀냈다. 또 이들이 의관 직역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근친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지만, 가문 단위로 확대해보면, 의관 집안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가 비슷한 의·역·주 3분야를 비교적 골고루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문반 관료의 출사, 승진코스와는 다른, 중인층의 사회진출 코스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실증연구로 생각된다. 박훈평(2021)은 태안이씨 사맹공파 내 의관을 분석했다. 1672년 사맹공파에서 의과 급제자가 처음 나타났고, 18세기 중반 내의를 3명 배출해 의관 집안으로서 입지를 다졌으며, 18세기 중후반에는 가계 내 의관이 19명으로 늘어나는 등 의관 직역의 세전 양상이 19세기까지 이어지는 점을 밝혀냈다. 또 이들이 가장 많이 종사한 의관은 전의감이었고, 후진의 의과대비를 위해 『해혹변의』를 찬술한 것으로 파악했다. 나영훈(2021)은 『울과방목』 정보를 보완, 분석해 조선 후기 울과 입격자들이 친족네트워크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울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률 집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해간 것으로 보았다.

이훈상은(2021)은 통제영의 왜학, 심약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잡과 취재 입격자를 지방에 파견하는 제도를 검토하면서, 이들을 평가하는 제도가 점차 부실해져 19세기 중엽 이후로는 이들이 지방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편법을 자행하게 된 점을 지적했다. 김철배(2021)는 오수지역 양로당에 소장된 『양로청선생안』과 『양로안』 등을 바탕으로 오수역의 역리가문을 조사한 결과 김해김씨 삼파 후손이 89%를 차지하는 점을 밝히고, 그 배경으로 이들의 입향조인 김기손 등이 무오 사회에 연루되어 오수역 역리에 정착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권기중(2021a)은 조선후기 『상조문선생안』을 바탕으로 경주지역 이방의 인적구성과 이들의 임용, 퇴임 및 호장과의 관계 등을 분석했다. 이로써 17~18세기에는 이방을 거친 후 호장이 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19세기에는 호장을 거친 후 이방이 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밝혀냈다. 관련하여 정성학(2022)은 조선후기 경상도 향리의 향직계승 양상과 신분 지향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조선

후기 신분 경쟁과 양반되기 열망으로 호적 상에 양반의 최소 직역이라 할 수 있는 유학이 늘어나는 가운데 향리 직역 또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하는 차원에서 논지를 전개했다. 그에 따르면 향리가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모두 향직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린 후손들은 읍치 내에 거주하며 하급관속으로 사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읍치를 떠나는 이들은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었기에 결과적으로 모두 향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선후기 향리층의 생존전략과 실상을 사회사적으로 잘 분석한 글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근대이행기 이들이 지역사회 내 어떠한 위상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전망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외에도 진재교(2022)는 한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중인의 존재양상을 세밀히 밝혔으며, 조정곤(2021)은 제주 어도의 진주강씨가 고문서에 나타나는 고공의 양상을 추적했다.

노비제에 있어서는 국가의 함경도 노비정책을 분석한 도주경의 논문(2022)이 주목된다. 그는 조선의 최북단에 위치한 함경도 노비들의 경우 주인의 간섭없이 토지를 독립 경영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가는 이들을 공노비로 삼거나 속량을 통해 군역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했음을 지적했다. 조선후기 국역체제 하에서 노비제가 형해화되는 양상을 함경도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실증해낸 논문이다. 함경도 옛 6진 지역에서 여진족의 후예로서 생활하는 재가승의 존재 양상을 밝힌 이동규(2021)의 논문도 삼남과 다른 함경도 지역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기존의 신분사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조선의 소수자, 외부집단에 대한 연구도 보완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채홍병(2022)의 연구가 주목된다. 그는 명칭 교체기 조선에 망명해온 명 유민의 후예(황조인)를 국가적으로 예우하고 이들의 조상을 현창하는 정책이 영·정조대 확대되면서, 황조인 공씨들 역시 정조 16년(1792) 공씨의 관향을 곡부로 공인받고, 지속적인 현창사업을 추진해 자기 정체성을 공고히해간 것으로 파악했다.

조선후기 여성의 존재양상을 사회사적으로 접근한 연구들도 다수 발표되었

는데, 특히 김경숙(2021)과 박경(2021)은 형법제 하에서 사대부가 여성의 친소·친송활동과 여성 격쟁의 실태에 대해 검토했다. 김경숙은 17~18세기 초 영월 신씨가 3대에 걸친 여성들의 청원·소송 활동을 고찰함으로써 사대부가 여성에게 친소·친송의 법적 권한이 보장되어 있었고, 양반 여성들 역시 사회적 규범과 소송의 명분을 활용해 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박경(2021) 역시 조선시대 내외법과 정절 관념으로 여성의 활동영역이 제한되었지만, 여성의 격쟁은 법으로 제한되지 않아서, 정조대 『일성록』에 확인되는 여성 격쟁의 사례만 224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의 억울한 누명을 호소하는 사례가 가장 많고 분쟁 및 관권 남용에 관한 민원 사례도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하여 이홍식(2022)은 영조 24년(1758) 조후창의 아내 염씨가 동네 윤후신이란 자의 무고로 관아 앞에서 자결한 사건을 둘러싸고, 후대 3편의 열녀전과 1편의 필기, 9편의 지리지에 관련 기사로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승돼, 하나의 열녀서사로 확장되어가는 양상을 검토했다.

한편 조선후기 양반여성의 가족 내 위상을 검토한 연구들도 발표됐다. 하여주(2022)는 송시열이 시집살이 지침서로 지은 『계녀서』의 텍스트성을 고찰하면서, 그가 17세기 양반여성을 대상으로 편찬된 교육 서적들의 내용을 선별해 실천성을 강조하는 유교적 젠더 규범을 성립시켰음을 지적했다. 전지원(2022)은 조선후기 여성 생애자료를 검토해 조선후기 사족여성들이 노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과정과 성별화된 노동의 역사성을 규명하는 취지의 학위논문을 발표하였다. 유교적 가족 질서 하에 여성의 가계노동이 강조되고 사족여성 역시 이를 내면화해갔다는 다소 수동적인 담론지형을 보완해, 사족여성이 노동의 반대급부로서 얻게 되는 가정 내 지위가 무엇이었는지, 균형 있는 언급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관련하여 김보람(2022)은 조선시대 사족여성의 만며느리 권한이 조선전기 ‘총부권’에서 조선후기 ‘종부권’으로 변화되어, 봉사와 입후 문제에 관한 실질 권한이 줄어들게 되었지만, 종자(宗子)의 처로서 부여받는 위치와 역할은 종법질

서가 강화되는 가운데 가족 내에서 강한 지지를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여성사적 관점은 아니지만, 강나은(2021)은 안동권씨 족보에서 조선후기로 갈수록 처에 대한 정보가 늘어나는 것에 주목하고, 그 이유에 대해 안동권씨 부계친족의 사회적 지위 유지에 처의 가계정보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것으로 진단했다.

조선후기 하층여성에 대해서는 여악, 기녀에 관한 연구가 발표됐다. 김경란(2021)은 『경상도 대구부호적대장』을 토대로 국역체제 하 기녀의 파악방식을 검토하면서, 19세기 들어 대구부 감영 소재지에서 기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배경을 고찰했다. 그는 경기(京妓制) 폐지 이후 조정의 연회와 의례에 필요한 기녀를 외방의 선상기녀에 의존하게 됐으며, 내시노비 혁파 이후 공노비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녀 확보를 위해 기녀의 개별파악 방식이 강화됐고, 기녀확보가 유리한 감영소재지 인근에 기녀 등재가 집중된 것으로 보았다. 서지영(2022) 역시 17세기 이후 궁중 여악이 축소되는 가운데, 기녀의 민간활동 활성화로 기녀 집단 내부에 위계화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민간의 활동에서 신역을 지는 관기와 창녀로 명칭이 이원화되는, 제도권 외 기녀들의 분화양상을 밝혀냈다.

가족·친족 관련 연구에서는 양반가 소장고문서를 바탕으로 가문의 내력과 위상을 검토한 연구를 비롯해, 족보간행과 종계활동에 관한 논의가 고르게 발표되었다. 김명자(2021)는 전주류씨 함벽당 종가의 간찰 자료를 바탕으로, 전주류씨 가문의 교유 양상을 검토했으며, 박소희(2021)는 거창 강동 초계정씨가와 고문서를 바탕으로 집안 내력과 위상을 살펴봤다. 백광열(2022)은 특히 전주이씨 대동보인 『선원속보』를 연구학적으로 접근해 조선후기 인구증가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했다. 그는 인구학 분야의 ‘합계생존율(한 여성이 평생동안 출산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시킬 것이 기대되는 자녀수)’ 개념을 활용해 전주이씨의 합계생존율 값이 17세기 전반은 매우 낮다가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까지 상승하였으며, 19세기 전반 값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점을 밝혀냈다. 왕실 족보라는 계층편의를 감안해야 하겠지만, 인구감소가 19세기 위기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만큼 현존하는 민간의 족보를 바탕으로 합계생존율이 전주이씨

가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는지 데이터가 축적되기를 기대해본다.

향촌사회사 분야는 향촌공동체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동계·서원·사찰에 관한 연구와 목민의 관점에서 수령의 향정을 검토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김형수(2021)는 임진왜란기 의병을 조직한 서사원, 손처눌 집안이 전쟁 종식 후 지역사회 재건을 위해 향교와 연경서원을 중수하고, 한강 정구를 통해 학문을 장려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대구를 한강학파의 제 2근거지로 성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음을 실증했다. 이밖에 김재호b(2022)는 안동임씨가 주도한 청송 주산지의 수리공동체에 관해, 원재연(2022)은 소남 윤동규의 도남촌 공동체 활동에 대해, 심재우(2022)는 진주 대곡 마진마을의 동림(洞林) 갈등에 대해 사례 연구를 발표함으로써 향촌공동체의 결합과 내부갈등을 다채롭게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향촌의 서원과 사찰에 관한 연구도 다수 발표되었다. 경상도 지역의 서원에 대해서는, 안동의 도산서원, 선산의 금오서원의 운영 양상을 검토한 이병훈의 연구(2021a; 2021b)와 안동 호계서원의 건립과 위상을 다룬 우인수의 연구(2022b), 상주 도남서원의 시회(詩會)를 통해 지식네트워크를 분석한 채광수의 연구(2021), 상주 상주 옥동서원의 위치시비 문제를 다룬 김순환의 연구(2022)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전라도는 『무성서원지』의 번역과 함께 서원지의 체제와 구성을 살핀 권이선·박정민의 연구(2021)가, 충청도는 논산에 설립된 돈암서원·노강서원·죽림서원의 설립 연혁과 서원의 정치적 특성을 검토한 이경동(2022b), 이연숙(2022)의 연구가 참고된다. 한편 임호민(2021)은 조선 후기 강원도 강릉 지역의 서원건립 양상과 운영에 따른 향전(鄕戰)을 소개했다. 이외에 김영나(2021a ; 2021b)는 안동, 경주 지역 서원들의 노비운영 실태를 검토했는데, 안동 병산서원의 경우 18세기까지 노비수가 증가추세이다가 19세기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들의 거주지 역시 18세기까지는 타도로 확대되다가 19세기 들어 서원 인근으로 다시 모여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사찰에 대한 연구는 『계암일록』 상에 안동사족의 사찰 이용 실태를 살펴본 노윤주의 논

문(2021)을 비롯해 사찰 중창과 비석 건립, 불화 조성에 참여한 승려집단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됐다(김민규, 2021; 이용윤, 2022; 이종수, 2022).

수령의 향정과 목민서에 대한 연구로는 홍해뜸의 논문(2022)이 주목된다. 그는 조선 후기 목민서를 ‘목민고’ 계통과 ‘선각’ 계통으로 구분하는 한편, 『목민고』계통의 서적이 수령정치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각』 계통의 목민서가 새롭게 편찬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법과 전례, 지역 사정을 고려한 새로운 수령정치의 방향이 모색되고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외에 유승희(2022)는 18~19세기 목민서에 담긴 민소 처리 지침과 민장 자료의 실태를 검토했으며, 고민정(2021a) 역시 하버드연칭도서관에 소장된 민장치부책인 『강원도각군장제』를 바탕으로 19세기 강원도의 사회상을 고찰했다. 이남옥(2022)은 제주목사 이형상의 풍속 교화와 폐정개혁 정책을, 이광우(2022)는 목천현감의 수령통치의 성격을 살펴 보았다. 한편 향약과 향음주례에 관한 사례 연구도 꾸준히 발표됐는데, 김종수(2022)는 공주지역 재야산림인 화산 정규한의 화산향약에 대해, 한미라(2022a; 2022b)는 전라도 남원 기지방의 입암향약과 삼도수군통제사 백은진의 향약 시행에 대해, 백지연·박경하(2021)는 전라남도 장흥군 주현향약에 대해, 신주엽(2021)은 19세기 경주부 향음주례의 시행에 대해 고찰했다.

한편 양반사족들의 구휼·구빈활동에 대한 연구도 발표됐다. 김호(2022)는 향촌공동체 내 사족의 호혜를 실현하는 기구로서 의국에 주목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경화사족 홍길주가 지식인을 초빙해 의서를 편찬하며 환자 치료기관으로 용수원을 설립해 운영한 정황을 검토했다. 관련하여 배상현(2021)은 김해지역 김부선 부부의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의 구빈활동을 소개했으며, 김덕진(2022)은 이민서의 나주목사 시절 도서지역의 진휼 양상을 검토했다. 이밖에 조선 후기 지리서 편찬의 흐름을 정리한 연구도 주목된다. 이재두(2021)는 조선 후기 관찬읍지의 성격을 분석한 박사논문을 발표했는데, 17세기 말부터 국가 주도의 전국적인 읍지편찬이 추진됨으로써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해 영조대 『여지도서』, 정조대 『각도읍지』, 『동여비고』, 『해동읍지』, 19세기 말 『각도읍지』에

이르는 전국단위 지리지 편찬과 증보작업이 이루어진 점을 밝혀냈다. 향후 각 군현의 지리지, 지도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사를 재구성하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사회사 연구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서원과 서당, 향약 외에 사찰집단의 존재 양상을 밝히려는 연구와 향촌 내 갈등을 넘어 상호 호혜를 실현하려는 동계, 의국, 구빈 활동의 양상을 포착해낸 연구들이 발표된 점에서 사회사 연구 범위와 대상이 확장되는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실체가 분명하지 않았던 무관·서얼·향리·여성 등의 존재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과 족보를 활용한 인구사적 전망까지 포괄한 연구들이 이어진 점에서 질적 연구의 깊이를 더했다고 생각한다.

## 2) 경제사

경제사 연구는 2년간 『한국사연구회보』 상에 총 87편이 수록되었으며, 이를 주제별로 분류하면 상인조직[시전·보부상]과 상업유통, 대외무역, 국가재정, 농업·가계경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재정 관련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양안, 대동·상정법, 진상 등에 관한 제도사적 검토가 이어졌으며, 상업유통에 있어서는 시전상인과 보부상의 조직구성을 추적한 연구 외에 장시·화폐에 관한 기존 시각을 재검토한 연구들이 발표됐다. 앞서 언급한 분류법을 바탕으로 각 주제별 연구동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업유통 부분에서는 상인조직, 장시, 화폐유통에 관한 새로운 논점의 연구들이 발표됐다. 시전상인에 대해 김미성(2021)은 가와이문고의 면주전 자료를 분석해 조선 후기 면주전 소속 상인들의 장례부조의 대상과 방식을 고찰했으며, 조영준(2022b)도 면주전 대방의 호상소 내 재전(齋錢)·예전(禮錢) 운영 실태를 검토했다. 조영준(2022a)은 이밖에도 면주전의 포상 및 처벌규정을 통해 조직 내 상인들에게 주어진 인센티브 체계를 검토했다. 조선 후기 면주전으로 대표되는 시전상인의 내부조직과 운영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들로서 시전상인

의 실체에 한발짝 더 다가선 연구들이라 하겠다. 한편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한성부 시전공간이 어떻게 형성, 변화하는지를 건축사적으로 밝힌 정수인의 연구(2022)도 참고된다.

장시에 대해 김미성(2022a; 2022b)은 한강 광나루 일대의 송파장 개설이 갖는 군사적 의미를 고찰하는 한편, 한양을 중심으로 한 국용목재 유통업자들의 관계망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김태홍(2022)은 함경도의 특산물 판매 및 미곡 유통 수요로 인해 조선후기 도로망이 정비되고 도내 장시망이 발달하는 양상을 검토했다. 조영준·고민정(2021)은 2019년에 이어 모시생산이 활발했던 충청남도 서남부 지역 저산팔읍에서 활동한 보부상 조직의 규정과 명단을 정리해 간행했다. 한편 조선후기 장시 발달에 주목한 연구와 결을 달리해, 조영준(2021)은 18~19세기 전국의 장시분포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여 인구밀도와 장시밀도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며, ‘매월 개시회수’를 통해 장시를 유형화한 결과 ‘정형화된 5일장’의 비중이 감소하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19세기 전국의 장시수가 감소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개시일 기준으로 내륙 장시의 유통망을 재현할 수 있을지와 같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도기적 연구로서, 향후 논점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 이밖에도 조선후기 상업유통에 대해 김하라(2021)는 경화사족 유만주가 책주릅을 통해 도서를 구매하는, 민간의 서적유통 사례를 소개했으며, 정대영(2022)도 상업용 고지도의 제작과 수요자층을 분석해, 당대 지식인들의 지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엿볼 수 있는 사례연구를 제시했다.

화폐유통에 관해서는 반계 유형원의 화폐유통론을 국가재분배적 관점에서 해석한 송양섭의 논문(2021c)과 조선후기 화폐 기능을 부세수취와 국고곡 확보 수단으로 파악한 유현재의 연구(2021)가 주목된다.<sup>5)</sup> 이는 조선후기 화폐를 재정적 관점에서 검토한 연구들로서, 시장에서의 교환기능보다 국가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기능이 컸음을 강조한 논문들이다. 특히 송양섭은, 반계 유형원이 구상

5) 화폐의 재정적 기능은 『부역실총』을 바탕으로 국가의 부세자원 가운데 동전의 비율을 검토한 김재호<sup>a</sup>의 논문(2010)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한 행전론의 핵심이, 공전의 세수에 비례하는 통화량을 산정하고, 물류 거점으로 서 포자를 설치해 화폐를 유통시키는 한편, 부세 대납을 통해 화폐를 회수하는 환류체계의 형성에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로써 농업경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물류의 재분배와 화폐 유통의 국가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임성수(2021a; 2021b)는 조선후기 환곡 운영에 있어 동전의 활용 양상을 세밀히 추적했다. 그에 따르면, 18세기 이후 대동저치미의 감소와 중앙의 은결 색출로 인해 지방관청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지방경비로 모곡 뿐아니라 환곡의 원곡까지 소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동전을 활용한 전환(錢還)을 확대하기 위해 이르렀다는 것이다. 영조 말부터 등장하는 전환은 봄에 동전 2냥을 지급하고 가을에 쌀 1석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정조대 전국 근현과 중앙군문까지 확대됐으며, 19세기 들어서는 고리대적 성격이 강화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민간의 화폐 유통에 따른 이자율에 대해서는 이정수(2022)의 논문이 참고된다. 그는, 『이재난고』를 통해 황윤석이 중앙 시환기 하급관료로 생활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된 상황을 포착해, 황윤석의 대차거래와 이자율을 검토했다. 황윤석은 급전이 필요할 때 주로 경강상인과 반주인, 공인, 경주인, 개성상인에 돈을 빌려 썼으며, 이자는 월리 8%이상, 연리 100%에 달하는 고리대로, 이는 공사채의 법정 이자율인 연리 20%보다 높은 수치였음을 밝혀냈다.

대외무역에 있어서는 경종 1년(1721) 왜관개시의 거래 양상을 분석한 김영록(2021)의 연구와 순조 11년(1811) 통신사행이 대마도에서 사적으로 매매한 물품거래 양상을 검토한 정성일(2022)의 연구가 참고된다. 이승민(2022)은 특히 조선후기 구무(求買)를 통한 동물류 교역에 주목했는데, 그에 따르면 말과 매뿐만 아니라 꿩꼬리·노루·다람쥐·토끼·고슴도치·담비·개·양·낙타 등 20여 종 이상의 다양한 동물들이 구무를 통해 유통되었다고 했다. 대청무역에 있어서는 중강개시에서 거래된 매매물화를 상세히 검토한 신세완(2022)의 연구와 개성상인의 상업활동과 개성부의 재정운영의 상관성을 분석한 김영록(2022b)의 연구가 주목된다. 김영록은 특히 개성부에서 대청사행과 왜관개시에 참여하는 개성

상인들에게 은을 대부해주고 이자수익을 얻음으로써 개성부 운영경비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개성상인 역시 개성부의 지원을 계기로 중계무역의 주도권을 확보해갈 수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국가재정면에서는 재정제도에 관한 굵직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 김소라(2021)는 조선후기 양안의 작성방식을 추적해 조선후기 전정(田政)의 특징을 검토했으며, 전상욱(2022)은 대동법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있던 강원도 지역의 대동·상정법을 통시적으로 검토했다. 엄기석(2021) 역시 대동법 연구의 또다른 미개척지인 황해도의 상정법을 제도사적으로 분석했다. 전상욱과 엄기석은 강원·황해지역에 대동법의 일종인 상정법이 실시된 배경과 구체적인 시행 양상을 밝힘으로써 대동법의 종합적인 이해를 도왔다. 한편 최주희(2022)는 영조대 작성된 「진상별단등록」의 성격을 규명하는 한편, 대동사목과 선혜 각청 사례 및 정례서를 활용해 조선후기 진상제의 변화상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대동법의 전국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까지 현물진상이 유지되는 가운데, 진상물종이 축소되는 한편, 외방진상의 상당 부분이 시장조달로 전환되는 양상을 밝혀냈다. 이밖에 설현지(2021)는 17세기 전반 호패법의 시행과정을 검토했으며, 문광균(2022)은 충청도 조운제도의 변화와 금강일대 세곡운송 경로를 밝힘으로써 조운제도의 지역별 사례를 구체화했다. 이밖에 『한국사연구회보』의 분류체계 상 ‘조선시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전라도 일대의 포구와 조창의 운영실태 및 민간의 해상교역을 검토한 김덕진의 저서(2022)는 지역사적 관점에서 조선후기 경제사 연구의 폭을 넓힌 성과라 하겠다.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중앙관서인 군기시의 재정운영과 평안감영의 물류체계를 분석한 임성수(2022), 박범(2021a)의 논문과 군문재정이 19세기 진찬의례에 활용되는 양상을 검토한 최우혁(2021)의 논문이 참고된다. 19세기 진흥문제 있어서 송양섭(2021b)과 이행묵(2021)은 각각 19세기 사창·사환제 운영과 순천부의 진자확보 사례를 검토했으며, 설현지(2022)는 황익재의 사창시행이 갖는 의미를 분석했다. 관련하여 『비변사등록』 상의 재실분등장계를 분석해

19세기 전라도 재실분등의 실상과 중앙정부의 재해 인식을 고찰한 박범의 연구(2021b)도 주목된다. 조선후기 자연재해 정보를 지도 상에 입력하고 통시적인 변화상을 추적한 연구로서 방법론 상의 참신성이 돋보이는 논문이다. 한편, 김영록(2022a)은 농민항쟁기 경상도 성주의 하남 폐단의 실상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지역민들이 어떻게 대처해갔는지를 구명했으며, 송양섭(2021a) 역시 19세기 거제 구조라리와 같은 해촌 공동체에 부과된 부세에 대해 지역민들이 어떻게 공동 대응해갔는지 검토한 사례 연구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조선후기 경제사 연구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간 상업사적 시각에서 논의되어온 시장, 상인, 화폐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으며, 17세기 이래 토지 및 부세제도의 개혁에 관한, 그간 밝혀지지 않은 제도사적 특성이 검출되었다. 뿐만아니라 대청·대일무역의 거래 양상과 거래물품의 상세 정보도 확인되었다. 사창운영과 공동납 사례를 통해 19세기 현상적 위기 요인들에 향촌민들이 어떻게 대응해갔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농업사 분야의 연구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농가의 토지 및 재산경영에 관한 사례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2018년 발굴된 최부자택 고문서를 바탕으로 노비경영과 추수기 자료를 분석한 권기중(2021b), 최주희(2021)의 논문이 참고된다. 특히 최주희는 경주 최부자택 소장 274건의 추수기와 60건의 수세기의 작성연대 및 추수기 작성 방식, 토지 분포 등을 검토해 19세기 말 20세기 초 최부자택의 지대는 전통적인 타조법으로 수취되었음을 밝혀냈다. 관련하여 정운섭(2021)은 윤이후의 『지담일기』를 토대로 해남윤씨가의 죽도 경영을 검토했으며, 정수환(2021)은 밀양지역 3개 사족 집안의 재산 분재 양상을, 이대화(2022)는 광주안씨 종중토지 관련 고문서를 바탕으로 근기지역 종중재산의 소유양상을 분석했다. 조선후기 양반사족의 경제수준이 하향평준화의 길을 걷는 가운데, 이처럼 활발한 가계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재지사족가문들이, 향후 그들이 몸 담고 있는 향촌공동체와 어떠한 타협 혹은 갈등을 이어가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어지기를 바란다.

### 3. 대외관계사

대외관계사 관련 논저는 『한국사연구회보』상에 총 138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주제별로는 대명·대청관계와 대일관계를 연구한 논저가 주를 이루며, 개항기 대영관계와 대러시아관계를 조망한 연구도 주목된다. 이밖에 조선에 표류해 온 일본인과 대만, 베트남에 표류한 조선인에 관한 연구도 발표됐는데, 향후 서남해안 일대의 해양교류 루트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대청관계 연구는 명청교체기 외교문서와 연행록 자료를 바탕으로 광해군 책봉, 인조반정, 이괄의 난, 정묘·병자호란 등의 사건을 정치사적으로 재검토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특히 이명제(2021)는 병자호란기부터 숙종대 삼번의 난이 일어난 시기까지 조선의 외교관계를 재검토한 박사논문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홍타이지는 조선이 번부로 편입되지 않더라도 후금(청)의 질서에 호응하는 입장에 있기를 바랐으나, 조선은 후금(청)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명과 비밀리에 내통하였기 때문에 결국 호부 관원을 조선에 파견해 징벌하였고, 이후 호부 중심의 외교체제가 고착화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도르곤의 섭정기에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선의 왕위 계승에 깊이 간섭하는 한편, 조선과의 혼사를 관철시켜 조선을 외변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르곤의 이러한 노력은 그의 사후 순치제가 친정에 나서면서 변화를 겪었는데, 순치제는 호부 중심의 외교체제를 폐지하고, 조선에 대한 사문(査問) 행위를 정비해 청-조선의 관계를 재정립했다는 것이다. 후금-대청관계의 시기별 변화상을 청의 내부상황과 연결 지어 잘 정리한 글이다. 이밖에 광해군의 세자책봉을 둘러싼 조명 간의 외교교섭을 검토한 정상호(2021)의 논문과 심하전투 당시 광해군의 밀지와 대후금 배후 교섭 양상을 분석한 장정수(2021b)의 논문, 조선군 파병 당시 심양관의 역할을 검토한 이석형(2022)의 논문들 역시 광해군대 외교정책의 추이를 보다 설득력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인조대에는 정묘맹약의 성격을 검토한 채홍병(2021)의 연구가 주목된다. 그

는 정묘호란 당시 후금과 체결한 정묘맹약에 대해 후금과 조선의 이해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후금의 경제적 요구를 수용해 가급적 군사적 충돌을 막으려 했으며, 이로 인해 병자호란이 발발할 때까지 정묘맹약의 체제가 유지되었다고 설명했다. 관련하여 허태구(2022)는 선조대~인조대까지 최고위 군사외교전문가로서 활약한 장만이 실제 대중국 외교현안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18세기에는 대청관계가 안정화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대청인식과 군사, 외교정책을 분석한 연구들이 소개됐다. 김우진(2022)은 청 제국이 삼변의 난과 몽골 준가르 부족과의 결전, 해적 침몰 등의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동시기 조선의 숙종 역시 선조와 인조의 굴욕을 기억하며 수도권 방어체제를 정비해간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김성희(2021)는 1690년대 이후 조청관계가 안정세에 접어드는 가운데, 숙종이 존주대의를 회복하고 국왕의 권위를 가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대보단 건립을 추진했음을 지적했다. 한승현(2021)은 정조대 조청관계가 보다 우호적인 형태로 전환된 배경을 검토했다. 그에 따르면 정조는 즉위 초, 전례 없던 건륭제의 칠순 진하사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청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조선국왕 및 사신에 대한 청의 우대수준을 높이고 양국 간 우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밖에 임혜균(2021)은 황해도 청사접대 비용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해서지척정례』를 간행하게 되는 경위를 밝혔으며, 이현진(2021)은 명청교체기 조선 왕후의 국상에 후금(청)의 조문례가 정립되는 과정을 의례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한편 연행록 자료가 새롭게 발굴됨에 따라, 정재철(2022)은 『열하일기』의 선행본인 『연행음청기』와 『연행음청록』을, 최식(2021a; 2021b)은 유언호의 『연행록』과 조득영의 연행시를, 조양원(2021)은 한문본 『무오연록』을, 김일환(2022)은 조문수의 심양사행시를 소개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19세기에는 급변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 대청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검토한 연구들이 눈에 띈다. 김창수(2022)는 고종 19년(1882)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체결 이후 조청 양국 간 사신파견과 외교방식 상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19세기 후반 근대적 조약체제 하에서도 조선은 사신·역관을 책임자로 하는 전통적인 대청사행 방식을 유지했으며, 조선의 재자관(齎咨官)은 자신의 정치적·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청의 외교전담관인 북양대신을 직접 상대하며 외교 현안에 대처하였음을 지적했다. 관련하여 임영길(2021)은 19세기 연행록에 기록된 아편전쟁의 양상을 검토해 조선의 사행단이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목격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모습을 소개했다.

대일관계에 있어서는 조선의 통신사행과 민간의 문화교류, 울릉도·독도 문제, 표류민 대책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정은(2021)은 에도 초기 조선통신사를 주제로 한 그림을 분석해 도쿠가와 막부가 그들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통신사 행렬의 이미지를 시각화했으나 민간에서는 이를 외국인 행렬이자 축제로 인식하였음을 밝혀냈다. 이해진(2022)은 인조 21년(1643) 쇼군의 후계자인 다케치요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된 조선통신사의 외교적 의미에 대해 검토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에 파견된 조선통신사는 쓰시마번이 막부의 권위를 높이고자 번 차원에서 조선에 요청한 외교행사였으며, 조선 역시 이를 알면 서도 대일·대청 관계를 현상 유지하고자, 일본에는 통신사를 보내고 청에는 쓰시마를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청과의 전략적 연대를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인조대 말 난도 높은 대일, 대청외교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논문이다.

숙종대의 대일외교에 대해서는 김태훈(2021)의 논문이 주목된다. 그는 숙종 4년(1678) 무오약조와 숙종 9년(1683) 계해약조의 성립으로 대일외교의 불합리한 관행이 폐지되고 외교원칙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이로써 내수외교의 대일정책 기조가 관철되었다고 설명했다. 심민정(2021a) 역시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숙종 8년(1682)의 임술약조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숙종이 임술통신사행을 파견해, 초량왜관 이건 후 관내 대마도인을 통제하고 조선에 왕래하는 차왜를 정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임술약조를 체결하였음을 밝혀냈다. 순조 11년(1811) 역지통신에 대해서는 충남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신미통신일록』의 발굴을

계기로, 『신미통신일록』의 자료적 특징과 내용구성을 검토한 해제논문이 발표되었다. 문경호(2021)는 『신미통신일록』을 외교문서와 통신사등록의 중간적 성격을 띤 자료로서, 역지통신의 성립배경과 육로 이동 상의 일정, 선박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로 파악했다. 한편 역지통신 이후 통신사파견이 중단되면서, 대조선관계를 담당하던 쓰시번의 관서들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검토한 연구가 발표됐다. 김민(2022)은 쓰시마번에서 조일무역을 관장하던 무역서(貿易署)가 고종 8년(1871) 쓰시마번 폐지 후 해체되는 경위를 분석했다. 그는 당시 외무성 관료였던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조선에 체납한 쓰시마번의 무역품을 상환할 목적으로 쓰시마 및 조선 현지에 파견되면서 무역서의 기능이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았다. 그결과 대일무역에 참여한 조선정부와 상인들은 물론, 쓰시마번에 자금을 대던 나가사키와 도쿄 상인, 쓰시마번의 사족, 상인 모두 경제적 타격을 입고 새로운 무역질서를 준비하는 과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김민(2021)은 관련하여 1872~1876년 사이 조일무역의 변화상을 검토하면서, 쓰시마번 퇴출 이후 외무성이 조일무역을 전담해 철저한 수출입 관리를 시도하고, 일본 내지 상인들에게 도항의 기회를 확대하려 했으나, 쓰시마 상인과 조선정부의 견제로 성사되지 못했으며, 상인들 간 거래도 전통적인 장부거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밝혀냈다.<sup>6)</sup>

대외외교관계의 중요 현안인 울릉도·독도에 관한 연구로는 홍정원(2022)의 울릉도 공도정책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에 따르면, 조선은 본래 왜구의 울릉도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울릉도 거주민을 내륙으로 쇠환하는 정책을 폈고, 17세기 일본과의 울릉도 영유권 관련 교섭에서 울릉도를 비워둔 사실을 구두나 서적으로 일본에 여러 차례 공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쓰시마번에서 울릉도가 일본에 속한다는 주장을 할 때에도 막부 차원에서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인하며 도해금지령을 내린 사실을 강조했다. 이훈(2022)은 헌종 3년(1837) 반포된 「덴포 죽도

6) 김민의 두 논문(2021; 2022)은 경제사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일본의 외교정책에 따른 일본 무역구조의 변화를 추적한 논문이기에 대외관계사 항목으로 분류했다.

도해금령에 '젠로쿠 연간에 조선국에 건네준 이래 도해 정지를 명한 섬이다.'라고 적힌 문장을 바탕으로 죽도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통시적으로 검토했다. 그는, 「젠로쿠 죽도도해금령(1696)에 담긴 막부의 죽도 인식은, 죽도가 본래 일본 섬이 아니므로 돌려준다는 표현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며, 당시 막부는 죽도의 영유권 다툼으로 조일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1837년 「텐포 죽도도해금령」에 '젠로쿠 연간에 죽도를 조선국에 건네주었다는 표현이 기재된 것은 당시 금령을 조선에 전달했던 쓰시마번이 죽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일본산 담배의 조선 유입과, 조선의학의 일본 전래를 문화사적 관점에서 검토한 논문들이 발표됐다. 신경미(2021)는 조선에 담배가 전래된 것은 광해군 2년(1610) 이전이며, 1614~1618년 사이에 담배의 씨앗이 조선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조선에서 담배 재배 농가가 늘고, 일본산 담배인 지삼을 흉내낸 조선산 지삼이 유통되면서 18세기에는 청에서도 조선의 담배를 최고 품질로 인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사오리(2021)는 임진왜란 후 조선 통신사행단에 속한 의원들과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 문답을 적은 의사문답집이 일본사회에 전파됐으며, 많은 일본인을 동원해 조선 약재를 조사함으로써 인삼 현지화에 기반을 닦고 『동의보감』의 번역도 성공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일본에서는 조선의학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서양 해부학과 우두법을 도입하는 등 근대의 학체계를 빠르게 흡수해갔다고 밝혔다. 한편 대일관계사의 연장선 상에서 표류민 연구도 상당히 진척되었다. 심민정(2021b)은 순조 19년(1819) 사츠마번 출신 야스다 요시카다 일행이 쓴 『조선표류일기』를 바탕으로, 표착지인 충남 서천에서 부산까지 조선정부가 표류일본인을 어떻게 송환, 대접했는지 검토하였다. 조선인이 외국에 표류한 기록에 대해서도 논문들이 다수 발표했는데, 장안영(2022)은 제주민들이 베트남에 표류하게 된 경위를 담은 기록을 발굴해 소개했으며, 김강식(2022)은 조선후기 경상도 주민들이 일본에 표류했다가 송환되는 과정을 추

적한 논문을 발표했다. 장정해(2021)는 대만에 표류한 조선인들이 대만 원주민 사회에서 겪은 체험담과 원주민의 모습을 기록한 자료를 다양하게 분석했다.

끝으로 19세기 후반 조선을 둘러싼 국제관계가 다변화되면서 러시아, 영국과의 외교관계를 고찰한 연구도 발표됐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성운(2022a; 2022b)의 연구가 주목된다. 그는 19세기 후반 조선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식민정책과 강제 재이주정책에 대해 검토했다. 한편 한승훈(2022)은 19세기 제너럴서면호 사건이 야기되었을 당시, 제너럴서면호가 조선에 온 직접적인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청일전쟁기 고종과 흥선대원군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이권을 매개로 영국과 개별 교섭을 추진해간 정황을 검토했다.

지금까지 청과 일본, 러시아, 영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외관계사 분야 논저들을 살펴보았다. 대청관계에서는 외교문서 등을 활용해 청의 내부상황은 물론, 17세 조-청 간의 미묘한 신경전과 외교전략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겠다. 대일관계에서는 숙종대 무오약조(1678)와 계해약조(1683)의 체결 등으로 내수외양의 대일외교 기조가 성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관련하여 「겐로쿠 죽도도해금령」(1696)에 담긴 막부의 외교적 입장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역지통신 이후 쓰시마번을 대신해 일본 외무성이 조일무역을 전담하고, 일본상인의 도항을 관리한 점 역시 새롭게 확인됐다. 대러시아 관계 연구는 연해주 이주민에 대한 폭력성과 식민성을 확인하는 작업이었으며, 대영관계 연구 역시 조선반도의 이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영국과 이를 교묘히 활용하려는 고종·흥선대원군의 민낯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 4. 사상·문화사

사상·문화사 관련 논저는 『한국사연구회보』상에 총 883편으로 파악되며, 조선시대 전체 연구분야 중에서 가장 많은 논저 수를 포함하고 있다. 조선후기라는 시대적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지만, 정통 역사학 외에 미술사학·민속학·한문학·국어학·고문헌학·건축학·한의학 등 인접분야 연구도 포괄하고 있어 경향성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다. 그럼에도 가장 많은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점에서 조선시대 연구의 확장 가능성과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분야라 생각한다.

### 1) 사상사

사상사 분야에서는 총 456편의 논저가 발표되었다. 본절에서는 조선후기 주요 사상체계인 성리학과 실학, 불교, 동학, 서학 관련 논저를 일차로 분류하고 지식인들의 교유와 인식을 담은 문집 및 기타 문학작품도 사상사 분류체계에 넣어 검토하였다.

성리학에 있어서는 17세기 조선 유학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정리한 강지은(2021)의 논저가 주목된다. 이 책은 저자가 2013년에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원고를 2021년 한국어판 저서로 간행한 것이다. 그는 양란 이후 지배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적 전환이 모색되었다고 설명하는 기존의 사상사 서술 방식에 문제제기를 가했다. 17세기 유학자들이 자신의 시대를 ‘위기’로 인식하고, 성리학을 회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는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우며, 이러한 시대 인식은 20세기 지식인들이 조선 유학사의 흐름 속에서 근대적 맹아를 도출하기 위해 설정한 인위적인 구도였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자들 역시 이러한 비판에 인식을 공유하면서, 개별 성리학자의 사상체계를 밀도 있게 분석했다. 나중현(2021)은 17세기 들어 율곡학파가 퇴계학파와의 대립 속에서 이이의 성리설을 하나의 학술 전통으로 성립시키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이경동(2021)은 이이가 17세기 경세론을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정치적 요인으로 조정에서 거론되지 못하다가 인조반정 이후 시호가 내려지면서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이후 그의 경세론도 국정운영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두 연구 모두 율곡학의 성립 과정을 추적한 연구들로서, 17세기를 조선성리학의 성립기로 간주하였다. 이와 관련해 조성산(2021)도 인조대 조익과 최유해가 이이의 이기론을 일부 변용하여 경세학

에 반영한 정황을 포착해냈다.

18세기 호락논쟁에 대해서는 유지웅(2021)과 나종현(2022)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유지웅은 18세기 중반 도암 이재와 백수 양응수, 미호 김원행이 낙론의 입장을 반영한 성리설을 주장했다고 보았으며, 나종현은 호론계 인사들의 정치적 행보를 검토하면서, 18세기 초반 이들이 윤증의 배사(背師) 문제를 가져와 정국변화를 꾀하였음을 지적했다. 19세기 들어서는 성리학의 사상논쟁이 두드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정척사계열의 의병장인 김도화의 현실인식(김순석, 2022)과 최익현의 제주유배 관련 기록을 검토한 연구(정만호, 2021) 등이 발표됐다. 19세기 유학자들의 문집이 최근 활발히 영인, 번역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 유학자들의 현실 인식과 사상분화를 추적하는 연구들이 보완되기를 바란다.

실학 연구에 있어서는, 근기남인계 지식인과 노론북학과 지식인의 사상을 검토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됐으며, 실학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2000년대 이후로 실학 개념에 대한 비판 논쟁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실학자들의 논설에서 근대적 맹아를 도출해내려는 시도보다는, 개별 논설이 근거하고 있는 성리학적 연원과 계보를 추적해 실학자가 당대 어떠한 사상적 좌표점에 있었는지를 규명하려는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관련하여 남인계 실학자인 유형원·이익·유득공·윤동구·안정복·정약용 등의 경학 및 경제학에 대한 검토가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특히 유형원 탄신 400주년이 되는 2022년을 전후로 『반계수록』에 관한 학술대회와 개별 논문 발표가 활발히 진행됐다. 이중 송양섭(2022)은 그간 내재적 발전론의 흐름 속에서 유형원을 실학의 비조로 평가해오던 방식이 최근 분야별 연구성과의 축적으로 정합성을 잃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그가 저술한 『반계수록』 역시 수기치인과 내성외왕의 성리학적 사상체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김승대(2021)는 유형원의 사상을 실학이냐 아니냐로 평가하기에 앞서, 『반계수록』이 작성된 경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그에게 영향을 끼친 친족 및 지인들의 거주지와 교류 공간을 면밀히 분석해야함을 역설했다.

한편 윤석호(2021)는 공전(公田)을 둘러싼 해석이 조선후기 유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층위로 전개되고 있었으며, 이중 정약용은 공전제를 모델로 한 점진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안을 『경세유표』에 담아낸 것으로 보았다. 김백철(2021)은 정약용의 『경세유표』 저술에 대해, 주례의 이념을 현실사회에 구현한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국가체제의 개편을 모색한 개혁안으로 평가했다. 그는, 정약용이 『경세유표』를 통해 관료제 전반을 개혁함과 동시에 국가의 재정 절감 및 세원 개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경세유표』의 정신은 고종대 구분신참으로 이어졌으나, 한일병합으로 인해 미완의 개혁에 그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대한 미련이 오늘에까지 『경세유표』를 소환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학파에 있어서는 김대중(2022), 한보람(2021)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김대중은 조선 전·중기에 조정에서 거론됐던 벽돌사용론과 박제가의 벽돌사용론을 비교해 양자의 논의 수준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에 따르면, 박제가의 벽돌사용론은 이전 시기 조선의 벽돌생산 및 활용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벽돌 제작 시 발생하는 민력 동원의 문제도 고려하지 않았기에 조선 전·중기에 비해 논의가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한보람은 18세기 연암그룹의 학맥과 혼맥, 교유양상을 분석해, 이들의 사상적 특징이 19세기 박규수 계열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규명하는 한편, 연암 그룹과 박규수 계열 모두 전통적 가치체제를 기반으로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실학의 개념에 있어서는, 성리학-실학의 대결 구도를 계보학적으로 설명한 허태용의 연구(2021b)가 주목된다. 그는 지금의 ‘성리학 대 실학’의 구도가 신채호의 ‘유학 대 낭가사상’의 구도를 변주한 것임을 지적했다. 신채호가 한민족을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하는 민족사를 만들어냈으며, 이것이 문명개화론과 자강론을 견지한 후배 연구자들에게 계승되어 조선시대 사상사를 성리학-실학의 대립 서사로 이해하는 방식이 형성되었고, 해방 이후 이러한 논점이 강화되어 오늘에까지 조선시대 사상사의 기본 구도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학 연구

에 민족주의 이념이 투영되는 역사적 기원을 추적한 논문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불교와 관련해서는 손성필(2021)과 김형수(2022)의 논문이 참고된다. 손성필은 16~17세기 들어 불교계가 재편되고 새로운 수행체계가 성립됐으며, 청허 휴정과 부휴 선수의 문도들에 의해 이러한 수행전통이 확산되었다고 보았다. 순천의 선암사 역시 청허계 문도인 현변에 의해 수행전통이 확립되었으며, 현전하는 「선암사사적」과 선암사중수비는 현변의 제자인 호암 약휴, 계음 호연이 그의 행적을 현창하기 위해 제작한 것임을 밝혀냈다. 김형수는 임진왜란기 승병 활동이 불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지배층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 전쟁 종식 후 사찰 재건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하면서, 안동권 사찰에서도 승려들이 주축이 되어 불사를 주도하고 지방관의 부조를 이끌어 내어 사찰 중건을 추진해갔다고 설명했다. 관련하여 이은주(2021)는 부여 무량사의 중창과 불사 실행에 대해, 오용섭(2021)은 속초 신흥사의 불서 간행 사례에 대해 검토했다. 왕실불교에 있어서는 17세기 전만 장렬왕후와 인목대비 사례를 중심으로 왕실여인들의 발원불사의 특징을 분석한 이현주의 논문(2021)이 참고된다. 한편 박성일(2021)은 조선 후기 등록류를 통해 사찰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예컨대, 『학교등록』을 통해 봉은사, 자수궁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사찰에 위패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명릉의릉주산앵봉사태치보토등록』을 통해 수국사의 연혁과 승역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서학에 있어서는 16세기 이후 예수회 선교사가 조선과 일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검토한 강성우의 연구(2021)와 1830년대 조선대목구의 관할 주체와 조선인 사제 양성방안을 둘러싸고, 중국인 사제 여항덕 신부와 파리의방전교회 사제들 간의 갈등을 조망한 이석원의 연구(2022)가 주목된다. 이들 연구는 예수회의 동아시아 선교 정책 속에서 조선에의 천주교 전파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한편 정조 19년(1795) 천주교도 장살사건과 그 영향을 다룬 김숙경의 연구(2021)와 신유사옥 이후 천주교에 대한 여론 형성과정을 다룬 소진형의 연구

(2022), 김대건 신부의 사목활동을 다룬 김정숙의 연구(2021)를 통해 조선후기 천주교의 전파 양상과 천주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동학에 관해서는 동학의 초기 교리 형성과정을 정리한 조성환·이우진(2022), 류해춘(2022)의 연구와 부안지역 동학농민군 활동을 추적한 조규태의 연구(2022)가 참고된다. 조성환·이우진은 1860~1862년 사이 최제우의 사상이 동학 경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추적하기 위해 최제우의 활동시기를 경주창도기-경주포덕기-남원창학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에 작성된 경전의 내용을 분석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주창도기에 작성된 「용담가」와 「안심가」에는 하늘님 체험이 중심을 이루며, 경주포덕기에 저술된 「포덕문」, 「교훈가」에는 도를 실현하는 방법이 담겨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남원창학기에 작성된 「논학문」에는 동학의 별칭인 천도(天道)라는 개념이 등장해, 이 시기부터 도가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다고 설명했다. 류해춘은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할 시기에 교도들에게 실천할 계명을 적어주었는데, 내용 끝에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이라 쓴 것에 주목해 그가 동학을 창도한 시점부터 보국을 위한 국가개혁과 안민을 위한 인내천 사상을 담지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조규태는 부안지역의 동학지도자인 김낙철, 김낙봉 형제의 입교 배경과 활동을 고찰했다. 그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1차 동학농민운동기에는 부안에서 농민들의 작란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가 1894년 6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 개시 후에는 부안민을 참가시켜 도소를 정비하였고, 당해 9월에는 동학 지도부의 명령에 따라 우금치전투에 참여했으며 이후로는 동학교단을 정비하는 데 힘썼다고 했다. 동학농민군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추적한 연구로 농민운동과 동학 교단 운영 모두에서 의미가 큰 논문이다.

지금까지 조선후기 사상사의 연구경향을 성리학(위정척사 포함)과 실학, 불교, 서학, 동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7세기는 율곡학파의 학문적 연원과 계보의 형성과정을 다룬 연구가 주목되며, 임란 이후 불교계의 사찰 중건과 수행전

통이 새롭게 마련되는 양상도 흥미롭다. 18세기는 실학 담론을 재해석하거나 비판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19세기는 서학의 전파와 수용 양상을 다룬 연구와 동학농민군의 실상을 다룬 논문이 눈에 띈다. 18세기의 사상지형이 비교적 단조롭다는 인상을 배제할 수 없는데, 사상사의 주류 담론을 형성해온 실학이 성리학과 큰 변별성을 갖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그들(실학자)이 제안한 개혁안을 ‘근대성’과 분리해 어떻게 새롭게 평가할 수 있을지 후속 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최근 19세기 권선서(勸善書)의 유행이 갖는 의미를 검토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19세기 사상사의 흐름 속에 그 계보와 경로가 구체적으로 설명되기를 바란다.

## 2) 문화사

문화사 분야에서는 총 427편의 논저가 발표되었다. 본절에서는 이를 왕실문화, 양반문화, 서민문화로 구분하고 조선후기 불교사 논문 중 불교문화에 관한 논저들을 포함시켜 연구를 정리하였다. 우선 왕실문화 부분에서는 궁궐 내 왕실구성원의 공적, 사적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의례·연향·회화·복식·도서출판 관련 연구들이 발표됐다.

17세기에는 현존하는 송선군과 낙선군·숙안공주·숙명공주·숙경공주·명안공주의 혼인 서사와 이들의 혼례에 쓰인 물품을 생활사적으로 접근한 단행본(김지영 외, 2021)이 간행되었으며, 이 책의 기초가 되는 『가례등록』역주본(김지영 외, 2022)도 발간되어 17세기 왕실혼례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18세기에는 영·정조대 왕실의례의 내용과 특징을 소개한 논문들이 발표됐다. 김동근(2021)은 영조대 편찬된 『국조상례보편』상에, 발인 전 재궁이 빈소를 나와 종묘에 하직인사를 드리는 조조의(朝祖儀)를 포함시킨 의미에 대해 고찰했다. 또한 정조대 조조의를 시행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영조와 정조의 예학에 대한 인식차로 설명했다. 권용란(2022)은 의소세손이 3세에 요절함으로써 길

례의 대상이 될 수 없었음에도 영조대 의소묘가 건립되고 이후 고종대까지 길례가 설행될 수 있었던 배경을, 영조의 국가의례 정비 시책과 부계 중심의 조상의례가 확대된 점에서 찾았다. 한편 구혜인(2022)은 영조가 재위 43년(1767)이 되는 해 정순왕후의 선잠제를 추진하면서 중사에 해당하는 문선왕작헌례를 활용해 제기진설제도를 마련한 이유를, 어린 나이에 계비가 된 정순왕후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었다고 지적했다. 19세기에는 효명세자의 왕실의례 전반을 검토한 박나연의 연구(2022)가 주목된다. 그는 효명세자가 4세에 왕세자 책봉례를 거행하고 9세에 입학례, 11세에 관례와 가례를 치렀으며, 세자신분으로 순조를 대신해 왕실의례를 섭행하고, 종묘와 대보단의 제향을 주관한 점을 밝혔다. 또한 대리청정기에는 순조와 순원왕후에 존호추상 의례와 연향을 추진한 점을 밝혀냈다. 이로써 효명세자 의례 설행의 특징을, 선왕 정조를 계승한 점, 효명세자의 측근인 원로·외척을 참여시킨 점, 왕실 위상을 고양시킨 점으로 정리했다. 고종대 왕실의례에 대해서는 이민아의 연구(2021)가 참고된다. 그는 조선시대 궁궐을 유교적 국가의례가 치러지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숙종대와 고종대 큰 변화를 겪는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당시 종친부 내에 선왕의 진전인 천한전을 새롭게 조성하고, 종친부를 광화문 앞 의정부·삼군부와 경복궁 사이에 배치했으며, 빈전과 혼전의 규모를 확대해 종친이 주도하는 의례 공간을 확대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대한제국기에는 국제사회에 제국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 중화전·돈덕전을 건립하고, 경운궁을 정비하는 한편, 원구단을 설립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한 점을 밝혀냈다. 다만, 이러한 의례공간의 확대, 창출이 근대국가의 수립과 제국주의 열강의 침입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왕실문화에 관한 연구들에서 확인되는 또하나 특징은 왕실의례와 연향에 쓰인 물품들과 그것의 조달방식을 추적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는 점이다. 구혜인(2021)은 조선후기 연향의궤 속에서 기록된 34종의 주기를 조사해 기종, 구성, 재질을 분석하고, 연향용 주기를 공급하는 관서와 조달체계를 검토하였다.

한혜선(2021)은 영조대 작성된 『갑자진연의궤』(1744)와 『수작의궤』(1765)를 바탕으로 도동해, 도소라 등 연향의례에 쓰인 도기의 종류를 분류하고, 공조와 소속 관서인 와서에서 연향용 도기 제작과 조달을 전담했음을 밝혀냈다. 한편 송인희(2021)는 1848년 진찬의궤 속에 당화준이 연회의 중심적인 장식물로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19세기 전반 왕실연향에 중국 자기 사용이 증가한 점에서 찾았다. 남소라(2021)는 현종 14년(1848)부터 광무 6년(1902)까지 총 10종의 연향의궤에 왜찬합이 등장하는 점에 주목해, 왜찬합이 대일무역을 통해 조선에 수입되었고, 중요 연회에만 진설되며 왕실의 최고권위자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왜찬합을 쓰는 이유로 맛과 성격이 다른 음식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기물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조선후기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된 고품질의 장식물과 식기가 19세기 왕실 연향에도 필수품으로 사용될 만큼 외국산 물품의 유통과 수입이 활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희정(2021)은 정조대 관찬사료에 기록된 연향용 음식기명을 분석해, 연향 때마다 사용된 음식기명의 종류와 개수, 기명에 담는 음식의 양을 계산해 놓았다. 조선시대 왕실 연향을 재현하는 데 근거가 될만한 연구이다.

왕실회화에 있어서는 윤민용의 연구(2021)가 주목된다. 그는 조선후기 궁중에서 제작된 건축화를 동아시아 건축화와 비교 검토하였다. 그는, 조선후기 궁중 소용 건축화는 중국의 건축화와 일본의 병풍도 화풍을 받아들여 이를 종합적으로 실험해 탄생한 결과물로서, 19세기 중엽에는 서양화법을 모방한 일점투시법이 적용돼 공간감과 깊이감을 더하는 건축화가 제작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최엽(2021)은 조선전기에는 왕실 후원 하에 궁중 도화서 화원이 불화 제작에 참여한 사례가 많았으나, 조선 중후기 들어 화원의 불화제작 빈도수가 줄어드는 대신, 사찰의 화승들이 불교회화의 주요 제작자로 활약하는 점을 밝혀냈다. 관련하여 조선후기 사찰에서 불화, 불상을 제작하는 승려, 승장의 실체를 밝힌 연구가 미술사 분야에서 다양하게 소개되었다. 화승과 승장의 존재는 조선후기 사회사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집단으로 생각된다. 또 왕실에서 간행하거나 소장

한 어보와 어진, 궁중 발기류에 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됐으며, 특히 왕실여성의 복식에 있어서는 조선과 청의 궁중여성 복식 문양을 비교 분석한 장진강의 연구(2022)와 궁중 무고(舞鼓)의 여령 복식을 검토한 최윤희·이은주의 연구(2022)가 참고된다.

양반문화에 있어서도 회화를 비롯해 건축·도자·공예·일기·간찰 등에 관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었다. 백지혜(2021)는 이명기의 초상화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초상화제작 기법을 연구했다. 그는 17세기 후반부터 서양화법이 유입되어 조선 화풍에 큰 변화가 나타났으며, 18세기 궁중화원이었던 이명기 역시 선대 화원들의 화법과 청으로부터 전파된 서양화법을 접목시켜 자신만의 표현양식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하여 조선후기에 제작된 정몽주·송시열·양득중·조영복·김낙수 등 양반관료의 초상화 기법을 분석한 연구들이 차례로 발표되었다.

전문 화원 집단에 있어서 임미현(2022)은 영조~순조대 도화서 화원이자 규장각 초대 자비대령화원으로 19개의 의궤 제작에 참여한 궁재 김득신의 생애를 추적했으며, 이성훈(2022)은 조선후기 대일교역용 회화를 제작한 동래 밀양변씨 화가들과 이들이 주축을 이루는 화단의 성격을 검토했다. 조선후기 화원집단과 이들이 제작한 회화의 유통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논문이다. 건축 분야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자료보고서』와 은진송씨 집안에서 가전되어 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동춘당 고택의 건축구조를 분석한 안준호의 연구(2022)와 월성위 김한신 가문의 세거지의 확대 양상을 검토한 김인경의 논문(2022)도 참고된다.

도자 분야에서는 최경화(2022), 방병선(2021), 이다란(2022)의 연구를 통해 19세기 상층 소비문화와 유행을 엿볼 수 있었다. 최경화는 18세기에는 민화의 발달로 민화풍 꽃송이가 시문되는 가운데, 모란이 사군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양상을 검토했다. 방병선은 19세기 백자연적, 계영배 등 ‘기교자기’의 제작 양상을 검토했으며, 이다란은 왕실 건축물의 단청에 쓰인 칠보문이 19세기 일반 사대부가의 도자·직물·목제·금속 공예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점을 밝혀냈다. 19세기 왕실에서 향유하는 고품격의 문화양식들 중에는 청과 일본에서 수입된 것

이 많았고, 이러한 문화가 점차 조선의 민간 사대부가에 수용, 전파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다. 관련하여 김은경(2022)도 19세기 조선백자에 청대 다각병 양식이 수용되는 양상을 검토했다.

한편 양반의 개인기록물인 일기, 간찰에 대한 연구도 다수 발표되었다. 대표적으로 김정운(2021a)은 상주 출신 양반인 조정의 일기[임진일기]를 통해 임진왜란기 양반의 피난생활을 소개했으며, 최은주(2021)는 『장사일록』을 통해 신흥망이 한양으로 압송되었다가 홍제원에서 평해로 유배되기까지 국왕의 명을 기다리는 동안의 과정을 검토했다. 박미선(2022)은 여산송씨 3대 가문의 여정을 담은 『서행록』을 통해 조선후기 양반들의 서행경로와 여행풍경을 서술했다. 박철민(2021)은 장서각에 소장된 의관 현재덕의 『엄산일기』를 발굴해 그 자료적 가치를 소개하는 글을 발표했으며, 정해은(2022a) 역시 노상추의 부친인 노철이 34년간 쓴 『선고일기』를 발굴해 노상추 가계와 무반가문의 추이를 연구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간찰에 대해서는 유기(2021)가 추사 김정희의 간찰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박사논문을 발표했으며, 전경목(2021)은 부안김씨 우반중가의 간찰을 통해 향촌사회의 생활상과 구성원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을 생생히 묘사한 저서를 출간했다.

서민문화에 있어서는, 의관·화원·도공 등 중하층 신분으로서 조선후기 문화 변동을 이끈 전문 직업집단에 관한 연구와 서민층이 향유하는 문학, 종교[불교, 도교], 풍속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됐다. 이기복(2022)은 조선후기 임정·장태경·은수룡과 같은 지역의 명망 있는 의원들이 남긴 의안을 분석해 조선후기 질병의 형태와 치료에 쓰인 약재의 종류를 밝혀냈다. 허형욱(2022)은 조선후기 조각승인 단웅에 대해, 최학(2022)은 18세기 경기의 화승집단에 대해 검토했으며, 노유니아(2021)는 임진왜란 당시 피랍도공 중 유일하게 한국식 이름을 고수했던 심수관가가 메이지 초기 일본수출도자 산업에 미친 영향을 검토했다. 이연주(2021)는 조선후기 고동서화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직업화가의 주문제작그림이 제작, 유통되는 양상을 밝혀냈다. 그에 따르면 직업화가는 도화서 소속 화원

과 민간에서 활동하는 화가로 구분되며, 이들이 그린 주문제작화는 실경산수화가 많았고, 인물화는 대부분 주문자 자신이나 주문자의 선조를 주인공으로 하는 초상화의 주문이 많았다고 한다. 이밖에 김소라(2022)는 조선후기 서민주거문화에 빠르게 보급된 온돌이 민간의 빨감 소비를 늘려 도성 사산(四山)의 나무가 줄고, 산에서 깎인 토사로 청계천 바닥이 높아지는 문제가 연이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온돌과 빨감에 대한 최근의 문제의식과 연구성과들을 잘 정리한 글이다.

한편 조선후기 서민층의 생활상과 민중의식을 엿볼 수 있는 한글소설과 가사들도 학계에 소개되었다. 신익철·김건곤·조윤희(2021)는 영조가 재위 40년(1764) 백성들의 생활상을 파악하기 위해 양도·팔도 수령들에게 지어 올리도록 해 만든 『양도팔도민은시』를 역주해 간행했다. 김덕진(2021)은 1731~33년 무렵 장흥지역 대기근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장흥 선비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임계탄」을 분석하여 대기근의 참상과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를 지적했다. 한편 김진영(2022)은 『춘향전』에 춘향이 장형을 맞는 장면에서 「십장가」가 삽입된 것은 춘향의 수난과 저항을 보다 생생하게 형상화하기 위함이었음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조선후기 문화사를 왕실문화, 양반문화, 서민문화로 크게 분류해 살펴보았다. 왕실, 양반문화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고 시기별로는 자료의 양과 질에 비례해 19세기 연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회화와 도자 등에 있어서 중국·일본의 양식, 기법을 수용하는 한편, 기성품을 수입해 쓰는 양상이 왕실에서부터 사대부가에 이르기까지 널리 확산되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문화 소비 및 향유의 패턴은 서울과 일부 무역 거점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며, 대다수의 서민들은 한글소설과 가사에서 드러나듯 기근과 전염병에 노출돼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상이한 문화지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III. 맺음말

지금까지 2021~2022년 사이 국내 학계에 발표된 조선후기사 연구동향을 주요 논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치열한 문제의식과 치밀한 고증으로 일구어 낸 1,600여 편의 성과를 씨줄, 날줄로 잘 엮어 보다 선명한 조선후기 사회상을 드러내 보이지 못한 점은 전적으로 평자의 능력 부족 탓이다.

부족하나마 분야별 연구성과에서 확인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재적발전론의 시각으로 보아온 주요 개념들을 재고 혹은 비판하는 연구들이 발표된 점이다. 예컨대, 사상사 분야에서 실학자들의 개혁안을 재검토하는 한편, 실학 개념을 계보학적으로 비판한 글들이 눈에 띈다. 사회경제사 분야에서도 시장과 상인, 화폐의 성격이 재검토되었으며, 재분배와 호혜의 관점에서 향촌의 전자 운영, 수리시설, 지대율 수취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들이 발표됐다. 19세기 전주이씨 족보를 활용해 인구 확산세를 입증한 연구도 19세기 위기론을 재고하는 단초가 되리라 생각한다. 다만, 19세기 사회의 운영원리와 민란 발생의 동인을 해명하기 위한 논의들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므로 민중사적 관점에서 밀도 있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둘째, 최근 기후위기와 재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후기사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된 전염병, 연료 소비, 동물생태에 관한 논문이 발표된 점이다. 특히 재실분등장계를 통한 도 단위 재해 양상을 분석한 논문이나, 대외무역을 통한 조일 양국 간의 동물교역, 온돌 보급에 따른 연료 소비 증대, 전염병에 대응하는 왕조의 방역대책 등은 오늘날 사회문제와 연동하는 시의성 있는 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 연구가 실마리가 되어 구조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기를 바란다.

셋째, 문헌·유물자료의 발굴 및 인접분야 연구 활성화로 2021~2022년 사이 많은 사상사·문화사 논저들이 발표된 점을 들 수 있다. 디지털 역사학의 수혜로 전근대 자료가 다수 DB화됨에 따라 국내외 연구자들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

역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각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검토와 해석을 바라는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인물들이 남긴 일기와 간찰, 민간의 회화, 공예작품을 문화사적으로 분석한 논문들이 다수 발표됐다. 특히 이번 회고와 전망에서는 19세기 왕실, 사대부 가문을 중심으로 중국·일본으로부터 사치재 수입이 활발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19세기 사회를 ‘위기’ 혹은 ‘성장’ 일변도로 해석해 온 시각을 수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최근까지 발굴이 이어지고 있는 일기, 고문서류 역시 관찰사료가 말해주지 않는 다양한 인간군상과 사회상을 담고 있으므로, 구조사의 틀을 새롭게 모색하는 기초자료로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소 산발적인 개별 연구들이 일관된 조선후기상을 그리고 있지 않더라도, 분야사의 공백과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개별 연구들이 탄탄히 축적된다면, 이는 구조사를 새롭게 예비하는 중요한 자양분이 되리라 생각한다. 다만, 매년 쏟아져 나오는 방대한 실증 연구의 문제의식과 논점을 공유할 수 있는 학술 공론장을 조성하고, 후속세대를 고려한 건전한 학술생태계를 만들어가려는 장기적인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몇 달 전 타계하신故강만길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이 글을 마친다.

(투고일자: 2023.08.26. 심사일자: 2023.08.26. 게재확정일자: 2023.08.28.)

**주제어:** 조선 후기, 내재적 발전론, 구조사, 실증연구, 공론장

**Keywords:** Late Joseon, Internal development theory, Structural history, Empirical research, Public sphere

## [참고문헌]

## ◎ 저역서

- 강지은, 『새로 쓰는 17세기 조선 유학사』(서울, 푸른역사, 2021).
- 계승범, 『모후의 반역: 광해군 대 대비폐위는쟁과 효치국가의 탄생』(서울, 역사비평사, 2021).
- 김덕진, 『포구의 지역경제사』(서울, 선인, 2022).
- 김우진, 『숙종의 대청인식과 수도권방어정책』(서울, 민속원, 2022).
- 김지영 외, 『17세기 조선 로열패밀리의 결혼』(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 \_\_\_\_\_, 『17세기 조선 왕실 가족의 혼례 - 가례등록·명안공주가례등록』(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2).
- 신익철·김건곤·조윤희, 『역주 양도팔도민은시 - 시로 읽은 18세기 조선 백성의 생활상』(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 이근호 외, 『숙종 대 정국 운영과 대외관계』(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 전경목, 『옛 편지로 읽는 조선 사람의 감정』(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 조영준·고민정, 『장돌뱅이의 조직과 기록 - 저산팔읍 상무좌사 편』(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

## ◎ 박사학위논문

- 김보람, 『조선 후기 가계계승과 중부의 역할』(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2022).
- 김소라, 『양안의 재해석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전세 정책의 특징』(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2021).
- 김순한, 『朝鮮後期 尙州 玉洞書院의 賜額과 運營』(영남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2022).
- 김인경, 『조선 후기 慶州 金門의 정치활동과 역사문화공간 연구』(건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2021).
- 김하라, 『물질로서의 책과 의 도서 구매 俞晩柱 - 책주름 와의 거래를 중심으로 -』 『한문학논집』 60(대전, 근역한문학회, 2021).
- 명경일, 『조선 후기 승정원일기의 구성과 편찬』(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2021).
- 박나연, 『純祖代 孝明世子 관련 王室儀禮 연구』(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2022).
- 박소희, 『조선 후기 경상우도 사족의 分化와 動向』(영남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2022).
- 백지국, 『조선 후기 경상도 창원부 재지사족 연구』(영남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2022).
- 백지혜, 『조선 후기 초상화 기법을 응용한 인물화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부, 2021).
- 사오리, 『조선 후기 한일 의학교류사: 통역사들의 기여와 번역서 검토를 중심으로』(인하대학교 대학원 의

- 학교육 및 의료인문학, 2021).
- 유 기, 『추사 김정희의 간찰 연구』(원광대학교 대학원 서예학과, 2021).
- 윤민웅, 『동아시아 시각에서 본 조선 후기 궁중 소용 建築畵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미술사학과, 2021).
- 윤혜민, 『17세기 후반 국왕의 정국운영과 戚臣의 역할: 효종·현종·숙종을 중심으로』(건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2021).
- 이동화, 『18세기 近畿 南人系 학자의 정치사상 연구 - 君臣關係論을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2022).
- 이명제, 『17세기 청·조선 관계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2021).
- 이민아, 『고종대 궁궐 儀禮空間 정비의 지향』(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2021).
- 이재두, 『조선후기 관찬읍지 연구』(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2021).
- 장진강, 『조선시대·청대 궁중 여성 복식 문양의 조형요소 비교 연구: 관혼상제 복식을 중심으로』(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2022).
- 전상욱, 『조선후기 강원도지역의 貢納制 개혁과 大同·詳定法 시행』(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2022).
- 전지원, 『조선후기 사족여성 생애자료에 나타난 여성노동 담론』(부산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2022).
- 정성학, 『조선후기 경상도 향리의 향직 계승과 지향』(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2022).
- 정수인, 『조선~대한제국 시대 한성부 시전 공간 연구』(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2022).
- 최 학, 『18세기 경기 화승과 불화의 화풍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2022).

### ◎ 연구논문

- 강경윤, 「충청우도 무반가 자료의 사례연구 - 결성 담양전씨 가문의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이순신연구 논총』 35(아산,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21).
- 강나은, 「조선 후기 족보의 여성 정보 등재 추이와 그 의미 - 安東權氏族譜(1476~1907)를 중심으로 -」 『한국사론』 67(서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21).
- 강석화, 「1812년 평안도 정주성 전투의 경과 및 관군과 반군의 역량 비교」 『군사』 124(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2).
- 강성우, 「16세기~18세기 동서양의 조우와 서양의 동아시아 이해 - 예수회의 조선과 일본의 이해를 중심으로 -」 『동아시아문화연구』 87(서울,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21).
- 경석현, 「조선 정조 대 관상감 경교수 제도의 정비와 그 의미」 『한국사연구』 193(서울, 한국사연구회,

- 2021).
- 계승범, 「인목대비 폐위 논쟁과 인조반정의 명분 - 오수창 교수의 비판에 답함」 『역사비평』 141(서울, 역사문제연구소, 2022).
- 고민정, 「19세기 강원도의 사회상 고찰을 위한 民狀置簿冊 기초 연구 - 하버드-연칭연구소 소장 『江原道各郡狀題』를 중심으로 -」 『한국학논총』 55(서울,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a).
- \_\_\_\_\_, 「『功臣會盟錄』과 『忠勳府謄錄』으로 보는 17-18세기 功臣家의 인적 계승 양상」 『규장각』 51(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1b).
- 구혜인, 「조선 후기 왕실 연향용 주기(酒器)의 종류와 운용체계-의례의 기용도(器用圖)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40(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1).
- \_\_\_\_\_, 「조선시대 선잠제 제기의 구성과 의미-영조 정해년 왕비친림작헌례의 제기를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112(서울, 서울역사편찬원, 2022).
- 권기석, 「조선 후기 의관(醫官) 가문의 인원 구성과 계보적 연계 - 『의역주팔세보(醫譯籌八世譜)』 수록 인원 분석을 중심으로 -」 『의사학』 30-2(서울, 대한의사학회, 2021).
- \_\_\_\_\_, 「樊巖 蔡濟恭과 교류한 인물로 본 18세기 고위관료의 社會關係網」 『한국문화』 99(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 권기중, 「『上詔文先生案』을 통해 본 조선시대 향리층의 변화양상 - 『慶州先生案』을 중심으로 -」 『한국사학보』 85(서울, 고려사학회, 2021a).
- \_\_\_\_\_, 「조선 후기 경주 최부자택의 가족구성도 노비경영 - 호구단자를 중심으로 -」 『사림』 76(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1b).
- \_\_\_\_\_, 「『講武堂先生案』을 통해 본 조선시대 무임층의 존재양상」 『조선시대사학보』 103(서울, 조선시대사학회, 2022).
- 권용란, 「조선 왕실 의소묘(懿昭廟) 의례의 형성과 특징」 『역사민속학』 62(제주, 한국역사민속학회, 2022).
- 권은나, 「광해군대 반역 사건을 통해 본 정국운영」 『大丘史學』 148(대구, 대구사학회, 2022).
- 권이선·박정민, 「무성서원지의 체제와 특징 - 1884년본을 중심으로 -」 『강원사학』 37(춘천, 강원사학회, 2021).
- 김강식, 「조선 후기 경상도 주민의 일본 표착과 송환」 『해양도시문화교섭학』 26(부산,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2).
- 김경란, 「조선 후기 국가의 妓女 파악실태와 편제방식 - 慶尙道 大丘府 監營소재지를 중심으로 -」 『남도문화연구』 44(순천,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원, 2021).
- 김경숙, 「17-18세기초 사대부가 여성의 친소(親訴)·친송(親訟) 활동 - 영광 영월신씨가 고문서를 중심으로

- 로 -」 『여성과 역사』 35(성남, 한국여성사학회, 2021).
- 김경용, 「1735년 식년감사 사마방목의 복원과 의의」 『교육사학연구』 31-2(서울, 교육사학회, 2021).
- 김대중, 「조선 중기 벽돌 사용 담론과 조선 후기 복학론」 『한문학보』 46(용인, 우리한문학회, 2022).
- 김덕진, 「한글가사 「임계탄」을 통해 본 「신임계 대기근」」 『역사학연구』 84(광주, 호남사학회, 2021).
- \_\_\_\_\_, 「이민서의 나주목사 부임과 부속 도서 진흥」 『사림』 79(서울, 수선사학회, 2022).
- 김동근, 「조조의(朝祖儀)의 공간 및 설행에 대한 논의와 그 의의」 『한국학』 163(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
- 김명자, 「조선후기 전주류씨 함벽당의 관계망과 그 특징」 『국학연구』 44(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21).
- 김미성, 「조선후기 면주전의 장례 부조 대상과 방식」 『서울과 역사』 107(서울, 서울역사편찬원, 2021).
- \_\_\_\_\_, 「조선후기 한강 송파지역의 군사적 의미와 장시(場市) 개설」 『군사』 12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2a).
- \_\_\_\_\_, 「조선후기 국용 목재 유통업자들의 관계망」 『역사와 현실』 124(서울, 한국역사연구회, 2022b).
- \_\_\_\_\_, 「18세기 후반 조선의 수해 이재민 보고 방식의 체계화와 恤典 시행」 『동방학지』 200(서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2c).
- 김미영, 「18~19세기 지산리 庶系 동성촌락의 형성과정 - 경상도 대구부 수동면 호적대장 분석 -」 『한국사론』 67(서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21).
- 김 민, 「1872~1876년 과도기의 조일무역연구」 『일본비평』 27(서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21).
- \_\_\_\_\_, 「쓰시마번(對馬藩) 무역서(貿易書)의 해체 과정에 대한 연구: 조일무역관련 부채 정리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비평』 27(서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22).
- 김민규, 「금강산 백화암 (서산대사비) 건립과 17세기 승려 석장의 활동」 『미술사학』 42(서울,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21).
- 김백철, 「『經世遺表』의 등장과 개혁안의 성격: 19세기 전통과 근대의 만남」 『규장각』 58(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1).
- 김병륜, 「조선후기 거북선의 종류와 특징」 『이순신연구논총』 34(아산,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21).
- 김성희, 「숙종 연간 조·청 관계의 맥락과 대보단의 시대적 기반」 『한국학』 163(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
- 김소라, 「불과 물: 조선후기 이상저온 현상 속 한성부의 온돌 확산과 청계천 준설」 『조선시대사학보』 102(서울, 조선시대사학회, 2022).
- 김숙경, 「1795년 천주교도 장살사건과 그 영향」 『역사와 세계』 59(부산, 효원사학회, 2021).
- 김순석, 「척암 김도화의 현실인식과 의병항쟁」 『안동학』 2(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22).

- 김순한, 「18-19세기 상주지역 남인 세력의 갈등 -상주 옥동서원의 位次是非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8(경산,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
- 김승대, 「반계 유형원 유적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상과 문화』 103(서울, 한국사상문화학회, 2021).
- 김영나, 「17~19세기 병산서원 노비의 존재양상」 『대동한문학』 67(안동, 대동한문학회, 2021a).
- \_\_\_\_\_, 「18세기 옥산서원 노비의 양상」 『민족문화논총』 79(경산,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b).
- 김영록, 「17세기 전반 왜관 개시무역의 거래 양상과 부채 문제」 『역사와 경계』 121(부산, 부산경남사학회, 2021).
- \_\_\_\_\_, 「1862년 농민항쟁기 경상도 성주의 下納 폐해와 지역민의 대응」 『역사와 경계』 123(부산, 부산경남사학회, 2022a).
- \_\_\_\_\_,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개성상인의 대외무역과 개성부」 『역사와 실학』 78(서울, 역사실학회, 2022b).
- 김우진, 「속종대의 문묘(文廟) 정비와 그 의의」 『역사와 현실』 119(서울, 한국역사연구회, 2021).
- 김은경, 「19세기 조선백자에 보이는 清代 多角瓶의 수용양상과 의미」 『미술사학연구』 313(서울, 한국미술사학회, 2022).
- 김인경, 「月城尉 金漢蠡 家門의 공간이 갖는 역사적 의미」 『동국사학』 74(서울,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2).
- 김일환, 「曹文秀의 시로 쓴 瀋陽使行」 『온지논총』 73(서울, 온지학회, 2022).
- 김재호a, 「조선 후기 중앙재정과 銅錢·賦役實摺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 김재호b, 「청송 주산지(注山池)의 역사와 수리(水利)공동체」 『한국문화』 97(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 김정숙, 「김대건 신부의 성사 사목활동과 행정 사목활동」 『교회사연구』 59(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21).
- 김정은, 「趙靖의 일기를 통해 본 전쟁 속 일상과 가족」 『영남학』 76(대구,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a).
- \_\_\_\_\_, 「1799년 전염병[胡疫]의 대유행과 국가의 위기대응 방식」 『대구사학』 145(대구, 대구사학회, 2021b).
- 김정자, 「純祖 前半期 親鞠·推鞠의 政治性 - 「親鞠日記」·「推案及鞠案」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법사학연구』 63(서울, 한국법사학회, 2021).
- \_\_\_\_\_, 「邪說·誣告·邪學 事件과 辛酉獄事 - 「推案及鞠案」의 姜彝天 推鞠 事件을 중심으로 -」 『역사와 경계』 122(부산, 부산경남사학회, 2022).

- 김중수, 「화산(華山) 정규한(鄭奎漢)의 '화산 향약(鄕約)'과 향촌 자치 구상」 『공통체문화와 민속연구』 3(안동,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22).
- 김진영, 「저항 장면의 형상화로서 <십장가>가 거둔 성취」 『민족문학사연구』 78(서울, 민족문학사연구소, 2022).
- 김창수, 「19세기 후반 대청(對淸) 사신의 파견과 역할 - 전통적 외교의 지속과 변용의 측면을 중심으로 -」 『중원문화연구』 30(청주,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22).
- 김철배, 「오수역참 양로청의 변천과 역리 가계 검토」 『전북사학』 62(전주, 전북사학회, 2021).
- 김태홍, 「18세기 후반~19세기 초 함경도의 유통망 확장과 장시 발달」 『역사학보』 256(서울, 역사학회, 2022).
- 김태훈, 「숙종대의 內修外攘과 대일관계 변화」 『지역과 역사』 48(부산, 부경역사연구소, 2021).
- 김하라, 「물질로서의 책과 俞晩柱의 도서 구매 - 책주름 曹氏와의 거래를 중심으로 -」 『한문학논집』 60(대전, 근역한문학회, 2021).
- 김한신, 「仁祖 즉위 이후 권력장악과 인목대비의 위상」 『동양학』 86(용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2).
- 김현구, 「18세기 후반 통제영의 軍備 체계와 실태 - 통제영 散逸 重記의 검토와 더불어 -」 『한국문화』 100(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 김현동, 「17세기 여영청(御營廳) 창설과 번상급료제(番上給料制)의 성립」 『한국사연구』 192(서울, 한국사연구회, 2021).
- 김현정, 「17~18세기 銓郎制 운영과 1741년 銓郎法 개정의 의미」 『조선사학회보』 101(서울, 조선시대사학회, 2022).
- 김현지, 「숙종대 시호(諡號) 수여 방식의 변화」 『한국서원학보』 15(성남, 한국서원학회, 2022).
- 김형수, 「임진왜란 직후 대구향촌세력의 재편과 갈등」 『국학연구』 44(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21).
- \_\_\_\_\_, 「조선 후기 고운사의 중창과 楓潭系 - 조선 후기 불교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 『국학연구논총』 30(대구, 태민국학연구원, 2022).
- 김 호, 「정조대의 방역(防戩): 안전과 호혜의 모색」 『민속학연구』 49(국립민속박물관, 2021).
- \_\_\_\_\_, 「조선 후기 경화사족(京華士族)의 자선(慈善) 의국(醫局) 구상 - 홍길주의 용수원(用壽院)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88(서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22).
- 나영훈, 「조선 후기 율과입격자의 친족 네트워크와 결속」 『국학연구』 45(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21).
- \_\_\_\_\_, 「조선 숙종대 '瀾南'의 형성과 인척 교류 - 사천목씨, 여흥민씨, 진주유씨를 중심으로 -」 『한국사학사학보』 46(서울, 한국사학사학회, 2022).

- 나중현, 「17세기 율곡학파 내 성리설의 변화」 『동국사학』 70(서울,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1).
- \_\_\_\_\_, 「18세기 초반 호론계 배사론(背師論)의 전개」 『한국사상사학』 70(서울, 한국사상사학회, 2022).
- 남소라, 「조선 후기 친합의 제작과 사용양상」 『미술사학연구』 310(서울, 한국미술사학회, 2021).
- 노유니아, 「심수관가(沈壽官家)가 갖는 역사적 의의에 대한 재고찰: 메이지기 일본 수출도자 산업계에 나타난 '사쓰마현상'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56(서울, 일본사학회, 2021).
- 노윤주, 「『계암일록(溪巖日錄)』(1603~1641)을 통해 본 안동지역 사족의 사찰이용 양태」 『민속학연구』 48(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21).
- 도주경, 「조선 후기 함경도 사노비의 존재양태와 국가 정책」 『역사와 현실』 125(서울, 한국역사연구회, 2022).
- 류해준, 「19세기 동학사상에 나타난 보국안민의 의미와 수사학」 『국학연구논총』 30(대구, 태민국학연구원, 2022).
- 문광균, 「조선 후기 충청도 안흥첨사의 위상과 재임실태」 『군사』 120(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1).
- \_\_\_\_\_, 「조선 후기 충청도 조운제도의 변화와 금강 일대 군현의 세곡운송」 『한국사연구』 198(서울, 한국사연구회, 2022).
- 문경호, 「『辛未通信日錄』을 통해 본 1811년 通信使船의 構造와 積載物品 研究」 『민족문화』 58(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21).
- 문준영, 「사형 판결 없는 살육죄인의 처리와 징벌: 19세기 살육사건 심리·처결의 경향과 특징」 『한국문화』 98(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 박 경, 「정조대 여성 격쟁(擊箏)의 실태와 특징」 『여성과 역사』 35(성남, 한국여성사학회, 2021).
- 박기훈, 「인조대 초반 '振武功臣' 녹훈 과정과 군사 활동」 『조선시대사학보』 98(서울, 조선시대사학회, 2021).
- 박미선, 「조선 후기 호남 양반의 西行 경로와 여행 풍경 - 『서행록』에 나타난 여산송씨 가문 3대의 여정을 중심으로 -」 『한국사학보』 88(서울, 고려사학회, 2022).
- 박 범, 「조선 후기 평안감영 재원의 성격과 물류의 추이」 『한국문화』 94(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1a).
- \_\_\_\_\_, 「19세기 전라도 재실분등의 추세와 자연재해의 지역성」 『조선시대사학보』 97(서울, 조선시대사학회, 2021b).
- \_\_\_\_\_, 「18~19세기 재해의 발생과 위유여사의 역할」 『역사와 현실』 122(서울, 한국역사연구회, 2021c).
- 박성일, 「등록류(騰錄類)로 살펴본 조선 후기 불교사료 검토: 『學校騰錄』 등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불교학보』 95(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21).

- 박소희, 「17세기 후반~19세기 전반 거창 강동 草溪鄭氏家の 내력과 위상」 『남명학연구』 74(진주, 경상국립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22).
- 박진철, 「19세기 조선 중기를 중심으로 본 동래부의 군비와 봉수 실태」 『한국학논집』 86(대구,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2).
- 방범석, 「조선 후기 중앙 군영대장 인사의 특성」 『사림』 78(서울, 수선사학회, 2021).
- \_\_\_\_\_, 「조선 후기 문반 군영대장 임용의 양상과 의미」 『한국문화』 98(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 방병선, 「19세기 백자 연적과 계영배(戒盈盃)를 통해 본 조선시대 기교자기 제작의 함의(含意)」 『미술사학연구』 309(서울, 한국미술사학회, 2021).
- 박현순, 「조선후기 蔭官의 初入仕 임용」 『규장각』 58(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1).
- 박철민, 「藏書閣 所藏 醫官 玄在德의 『弇山日記』에 대하여」 『장서각』 46(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
- 박훈평, 「조선 후기 태안이씨 의관 연구 - 사명공파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83(광주, 호남사학회, 2021).
- 배상현, 「조선후기 김해지역의 민간 구빈(救貧) 활동 - 金富善 夫婦의 사례를 중심으로 -」 『민족문화논총』 79(경산,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 백광열, 「족보를 활용한 조선후기 인구현상의 이해 - 전주이씨 『선원속보(璿源續譜)』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33(서울, 한국사회사학회, 2022).
- 백지연·박경하, 「19세기 후반 전라남도 장흥군 주현향약의 성격」 『역사민속학』 60(제주, 한국역사민속학회, 2021).
- 서민주, 「정조대(正祖代) 승지직(承旨職) 운영과 승정원(承政院)의 정비」 『한국사연구』 194(서울, 한국사연구회, 2021).
- 서지영, 「조선후기 여악의 민간 활동과 기(妓)·창(娼)의 분화 - 명명과 분류법을 중심으로 -」 『여성과 역사』 36(성남, 한국여성사학회, 2022).
- 설현지, 「17세기 전반 호패법 시행 과정 연구」 『대구사학』 144(대구, 대구사학회, 2021).
- \_\_\_\_\_, 「황익재(黃翼再, 1682~1747)의 사창 시행과 의미」 『민족문화논총』 80(경산,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
- 소진형, 「신유사옥(辛酉邪獄) 이전 천주교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그 정치적 의미: 천주교에 대한 여론형성과 사회의 보수화적 관점에서」 『정치사상연구』 28-1(서울, 한국정치사상학회, 2022).
- 손성필, 「17세기 순천 선암사의 중창과 수행 전통 성립」 『남도문화연구』 42(순천,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21).

- 송기중, 「조선 후기 통제영의 군선 건조와 養松處 관리」 『영남학』 78(대구,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 \_\_\_\_\_, 「17~18세기 통어영의 설치와 운영」 『사림』 82(서울, 수선사학회, 2022).
- 송양섭, 「19세기 巨濟 舊叻羅里의 부세운영과 촌락사회의 동향」 『대동문화연구』 114(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1a).
- \_\_\_\_\_, 「19세기 社倉·社選制 운영과 향촌민의 진출참여 - 순천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 97(서울, 조선시대사학회, 2021b).
- \_\_\_\_\_, 「반계 유흥원의 화폐유통론과 상업인식」 『한국사상사학』 69(서울, 한국사상사학회, 2021c).
- \_\_\_\_\_, 「유흥원 연구의 시각과 「반계수록」 읽기의 방향」 『한국실학연구』 43(용인, 한국실학학회, 2022).
- 송인희, 「1848년 진찬의례의 당화준(唐畫樽) 사용의 의의」 『한국문화연구』 40(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1).
- 송찬선, 「1862년 농민항쟁의 발발지역 검토」 『역사연구』 42(서울, 역사학연구소, 2021).
- 신경미, 「17~18세기 일본산 담배의 조선 유입과 그 영향」 『한일관계사연구』 73(서울, 한일관계사학회, 2021).
- 신세완, 「조선후기 中江開市の 운영 양상과 매매물화」 『역사와 세계』 61(부산, 효원사학회, 2022).
- 신영문, 「조선후기 도성방어체계의 추이와 禿山城의 위상변화」 『백산학보』 119(서울, 백산학회, 2021).
- 신주엽, 「1810년(순조10) 慶州府 鄉飲酒禮의 시행과 의미」 『민족문화논총』 78(경산,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 신재용, 「原州元氏 元豪家の 성장과 근거지 확산」 『북악사론』 14(서울, 북악사학회, 2021).
- 심민정, 「1682년 임술통신사행의 임술약조 강정과 조일 교린관계의 재편」 『한일관계사연구』 73(서울, 한일관계사학회, 2021a).
- \_\_\_\_\_, 「조선 후기 부산에서의 표류일본인 접대 - 『朝鮮漂流日記』(1819)를 중심으로 -」 『항도부산』 42(부산,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21b).
- 심재우, 「조선후기 진주 대곡 마진마을의 역사와 동림(洞林) 갈등」 『한국문화』 100(서울,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2).
- 심희기, 「19세기 조선 관찰사의 사법적 행위의 실증적 고찰」 『고문서연구』 58(서울, 한국고문서학회, 2021).
- 안준호, 「동춘고택(同春古宅)의 시기별 건축 변화에 관한 연구」 『문화재』 98(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2022).
- 엄기석, 「17~18세기 황해도 상정법의 실시와 정비」 『사학연구』 41(서울, 한국사학회, 2021).

- 여영기, 「조선후기 관학(館學) 기재생(寄齋生) 제도 연구」 『교육사학연구』 31-2(서울, 교육사학회, 2021).
- 오수창, 「조선시대 대비 지위와 인조반정의 재검토 - 계승범 교수의 『모후의 반역』 비판」 『역사비평』 140(서울, 역사문제연구소, 2022).
- \_\_\_\_\_, 「계승범 교수의 「인목대비 폐위 논쟁과 인조반정의 명분」에 부치는 재판」 『역사비평』 143(서울, 역사문제연구소, 2023).
- 오용선, 「17세기 속초 신흥사 간행의 불서와 목판」 『서지학연구』 88(수원, 한국서지학회, 2021).
- 우인수, 「조선후기 무과급제자의 義務 赴防制와 그 운영 실태」 『역사교육논집』 80(대구, 역사교육학회, 2022a).
- \_\_\_\_\_, 「경상도 안동 호계서원(虎溪書院)의 건립과 위상」 『한국서원학보』 15(성남, 한국서원학회, 2022b).
- 원재연, 「소남 윤동규(1695~1773)의 도남촌 공동체 활동」 『역사와 실학』 77(서울, 역사실학회, 2022).
- 유승희, 「18~19세기 목민서의 民訴처리와 民狀 자료의 실태」 『민족문화』 60(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22).
- 유지웅, 「18세기 중반 기호 낙론계 심론 - 심기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유학연구』 55(대전,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1).
- 유현재, 「조선후기 '상품 화폐경제'에 대한 이해 검토 - 화폐의 기능을 중심으로 -」 『송실사학』 46(서울, 송실사학회, 2021).
- 윤석호, 「『孟子』를 척도로 본 조선후기 公田 담론의 경제학적 층차」 『학림』 48(서울, 연세사학연구원, 2021).
- 윤여석, 「명의 책봉 지연과 광해군의 정통성 재정립」 『지역사 역사』 50(부산, 부경역사연구소, 2022).
- 윤 정, 「영조대 이순신 사적 현장과 후손 탁용의 정치적 함의 - 무신란에 따른 이념적 대책 -」 『역사민속학』 62(제주, 역사민속학회, 2022).
- 이강원, 「18세기 경기 서북부 방어체제의 재편과 장단 방어영의 파주 이설」 『한국사연구』 194(서울, 한국사연구회, 2021).
- \_\_\_\_\_, 「18세기 전반 탕춘대 지역의 도성 외곽 기지화와 총융청 관할 방어체제의 성립」 『역사와 현실』 125(서울, 한국역사연구회, 2022).
- 이경동, 「17세기 사상계의 율곡 경세론 수용과 전개」 『율곡학연구』 44(강릉, 율곡연구원, 2021).
- \_\_\_\_\_, 「조선후기 사충서원(四忠書院)의 건립과 운영」 『한국서원학보』 15(성남, 한국서원학회, 2022a).
- \_\_\_\_\_, 「조선시대 논산지역 서원의 운영과 특징 - 遯巖書院, 魯岡書院, 竹林書院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논총』 81(경산,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b).
- 이광우, 「16~19세기 학규를 통해 본 한·중 서원의 변모 양상」 『한국서원학보』 14(성남, 한국서원학회,

2022).

- 이근호, 「조선 후기 功臣 錄勳의 정치적 배경」 『조선시대사학보』 99(서울, 조선시대사학회, 2021).
- 이기복, 「의원의 서사로 본 조선 후기 의료의 사회문화적 풍경」 『한국문화』 98(서울,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2).
- 이남옥, 「제주 목사 이형상의 풍속 교화와 폐정 개혁 정책」 『국학연구』 47(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22).
- 이다란, 「조선 19세기 공예품에 나타난 단청 양식 칠보문의 의미」 『고궁문화』 15(서울, 국립고궁박물관, 2022).
- 이대화, 「조선 말~20세기 초 근기지역 중증재산 소유 양상에 관한 사례연구 - 경기도 광주 중대동 광주 안씨 중증토지 관련 고문서 자료의 재해석 -」 『장서각』 48(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
- 이동규, 「함경도의 소수 집단, 재가승(在家僧) 연구 - 재가승에 대한 기록과 정책을 중심으로 -」 『태동고전연구』 47(남양주,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21).
- 이민아, 「영조대 이후 궁궐 내 세자 공간 운용과 변화의 정치적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103(서울, 조선시대사학회, 2022).
- 이병훈, 「18~19세기 도산서원의 위상 변화」 『대동한문학』 67(안동, 대동한문학회, 2021a).
- \_\_\_\_\_, 「조선후기 선산 금오서원의 건립과 운영」 『민족문화논총』 78(경산,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b).
- 이석원, 「1830년대 중국인 사제 여항덕 신부와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제들과의 갈등 - 조선대목구의 관할 주체와 조선인 사제 양성 방안을 중심으로 -」 『중국근현대사연구』 96(서울, 중국근현대사학회, 2022).
- 이석형, 「17세기 전반 초정관계에서 심양관의 역할 - 조선의 파병을 중심으로 -」 『전북사학』 65(전주, 전북사학회, 2022).
- 이성훈, 「조선 후기 동래 밀양변씨 화가들의 회화 활동과 동래 지역 화단 연구: 대일교역용 회화 제작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43(서울, 미술사연구회, 2022).
- 이승민, 「조선후기 求賢을 통한 동물류 교역의 실태와 의미」 『역사와 교육』 35(서울, 역사와 교육학회, 2022).
- 이연숙, 「조선시대 논산지역 재지사족의 동향과 서원건립」 『민족문화논총』 81(경산,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
- 이연주, 「조선후기 회화 주문제작의 확산과 영향」 『미술사학연구』 315(서울, 미술사학연구회, 2022).
- 이용윤, 「18세기 후반 개심사(開心寺) 불화에 반영된 화승집단의 변화」 『인문과학연구논총』 43-1(서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 이은주, 「부여 무량사의 역사와 조선 17세기 중창 불사」 『남도문화연구』 42(순천, 남도문화연구소, 2021).
- 이재정, 「1860~70년대 조선의 砲架 제작과 메이지 일본 대砲 유입」 『군사』 123(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2).
- 이정수, 「18세기 『이재난고』를 통해 본 대차관계와 이자율」 『역사와 경계』 124(부산, 부산경남학회, 2022).
- 이정은, 「에도(江戸) 초기 朝鮮通信使 이미지의 형성과 위력」 『대동문화연구』 114(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1).
- 이중수, 「조선 후기 고성 옥천사의 중창과 僧役 문서」 『남명학연구』 76(진주,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22).
- 이해진, 「1643년 조선통신사 도일의 이면 - 일본의 초빙 목적과 예물 교섭, 그리고 조선이 청에 보낸 왜 정자문을 중심으로 -」 『일본학』 58(서울,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2).
- 이현주, 「17세기 전기 왕실 여인들의 불사(佛事) 연구: 장영왕후와 인목대비를 중심으로」 『미술사학보』 56(청주, 미술사학연구회, 2021).
- 이현진, 「조선후기 왕후 국상과 後金·淸의 弔問」 『동양고전연구』 84(서울, 동양고전학회, 2021).
- 이흥시, 「조선 후기 열부(烈婦) 염씨(廉氏) 서사의 존재 양상과 길항 관계 탐색」 『한국언어문화』 79(서울, 한국언어문화학회, 2022).
- 이 훈, 「울릉도쟁계(元祿竹島一件)와 근세 일본의 '죽도' 인식 - 소위 '죽도 양도' 인식을 중심으로 -」 『한일관계사』 78(서울, 한일관계사학회, 2022).
- 이훈상, 「조선후기 중인의 지방 파견제도와그 실상 - 심약·왜학·한학·화원·사자관·검물의 통제영 파견에 관한 사례 연구」 『대동문화연구』 113(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1).
- 임미현, 「공재(兢齋) 김득신(金得臣, 1754~1822) 생애의 재구성」 『역사문화연구』 82(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22).
- 임성수, 「17-18세기 還上의 取耗補助와 錢還의 등장」 『민족문화연구』 90(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1a).
- \_\_\_\_\_, 「19세기 還穀의 고갈과 高利貸의 운영 강화」 『대동문화연구』 113(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1b).
- \_\_\_\_\_, 「大同法 시행 이후 軍器寺의 재정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103(서울, 조선시대사학회, 2022).
- 임영길, 「19세기 연행록에 나타난 아편, 아편전쟁」 『한문학논집』 60(대전, 근역한문학회, 2021).
- 임혜균, 「18세기 黃海道 淸使接待 비유문제와 『海西支勅定例』의 성립」 『조선시대사학보』 98(서울, 조선시대사학회, 2021).
- 임혜련, 「19세기 『垂簾聽政儀』의 시행과 즉위의례」 『사림』 80(서울, 수선사학회, 2022).

- 임호민, 「조선후기 강릉지방 서원 건립과 운영에 따른 향전」 『지방사와 지방문화』 24-1(서울, 역사문화학회, 2021).
- 장안영, 「제주 조선인의 안남 표류 기록과 서술적 특징」 『온지논총』 72(서울, 온지학회, 2022).
- 장영수, 「고종과 대원군의 정치적 갈등과 명성황후」 『송실사학』 49(서울, 송실사학회, 2022).
- 장정수, 「조선후기 姜弘立에 대한 적대적 평가의 형성 배경」 『역사와 담론』 98(청주, 호서사학회, 2021a).
- \_\_\_\_\_, 「深河戰役 당시 광해군의 密旨과 對後金 배후교섭의 변질」 『사총』 104(서울,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21b).
- \_\_\_\_\_, 「인조대 초반 御營使·摠戎使의 설치와 親明排金 정책의 기류 변화」 『한국사학보』 86(서울, 고려사학회, 2022).
- 장정해, 「18세기 조선(朝鮮) 표류민이 살피본 대만(臺灣) 원주민의 모습」 『동방학』 44(서산,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1).
- 정다함, 「『모후의 반역』에 대한 오수창 교수와 계승범 교수의 논쟁을 바라보며」 『역사비평』 143(서울, 역사문제연구소, 2023).
- 정대영, 「조선시대 고지도 간행에 대한 試論: 상업판매와 수요층을 중심으로」 『한국고지도연구』 14-1(제주,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22).
- 정만호, 「제주 유배 관련 최익현(崔益鉉)의 기록 자료 고찰」 『해양문화재』 15(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1).
- 정상준, 「정조 대 규장각 직제 및 관원 이력 분석」 『규장각』 44(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 정상호, 「광해군의 세자책봉요청을 둘러싼 조선과 명의 외교 교섭 - 『事大文軌』 속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 『사총』 104(서울,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21).
- 정성일, 「외교 무대 뒤의 은밀한 물품 거래 - 1811년 조선, 일본, 쓰시마 -」 『東아시아 古代學』 65(포천, 동아시아 고대학회, 2022).
- 정수환, 「조선후기 분재와 가정경영 그리고 지역사회 - 밀양 3개 사족 가문의 사례를 중심으로 -」 『민족문화논총』 79(경산,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 \_\_\_\_\_, 「조선후기 서얼의 마을 개발과 결속 - 경주 여주이씨 옥산동 동계를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 100(서울, 조선시대사학회, 2022).
- 정우봉, 「『金石集帖』 수록 武人 자료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97(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2).
- 정윤섭, 「윤이후의 『지암일기』를 통해 본 죽도 벌업생활과 향촌활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24(서울, 역사문화학회, 2021).
- 정재철, 「신자료 『열하일기』 선행본 『연행음청기』(3)·『연행음청록』(4) 연구」 『동양학』 89(용인, 단국대학교

- 동양학연구소, 2022).
- 정지연, 「고종대 문과정시 운영 연구」 『교육사학연구』 31-1(서울, 교육사학회, 2021).
- 정진혁, 「17~18세기 추국청의 흑형(압습형(壓溼刑)), 낙형(烙刑)) 시행 추이」 『역사학보』 256(서울, 역사학회, 2022).
- 정해은, 「새 발굴 자료 『선고일기(先考日記)』의 특징과 가치 - 노상추·노철 부자의 일기 쓰기 의미 -」 『민족문화논총』 80(경산,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a).
- \_\_\_\_\_, 「조선 정조 대 훈련원 정비의 방향과 그 의미 - 1797년의 <훈련원절목>을 중심으로 -」 『역사학연구』 88(광주, 호남사학회, 2022b).
- 정호훈, 「1728년의 정치변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규범서 - 삼강행실도, 이륜행실도, 경민편의 간행을 중심으로 -」 『역사와 실학』 76(서울, 역사실학회, 2021).
- 정희정, 「물질문화 연구론 관점에서 본 조선후기의 왕실 연향용 음식기명 연구」 『미술사논총』 52(서울, 한국미술연구소, 2021).
- 제승희·김영선, 「조선 후기 무위(武威)의 상징 대기치(大旗幟) 고증」 『문화재』 94(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21).
- 조규태, 「김낙철 형제의 동학과 부안도소 활동」 『동학학보』 64(용인, 동학학회, 2022).
- 조성산, 「인조대 趙翼과 崔有海의 粟谷學 변용과 경세학」 『역사와 담론』 99(청주, 호서사학회, 2021).
- 조성환·이우진, 「동학(東學) 개념 탄생의 사상사적 의미 - 창도(創道)에서 창학(創學)으로 -」 『유학연구』 58(대전,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2).
- 조양원, 「한문본 『戊午燕錄』 연구」 『민족문화』 59(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21).
- 조영준, 「조선 후기 시장과 상업의 장기 변동에 대한 재검토: 18-19세기 場市 통계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76(서울, 경제사학회, 2021).
- \_\_\_\_\_, 「조선 후기 면주전의 인센티브 체계 - 포상 및 처벌의 규정과 실제 -」 『고문서연구』 60(서울, 한국고문서학회, 2022a).
- \_\_\_\_\_, 「조선 후기 綿紬塵 大房의 齋錢과 禮錢 운영 - 護喪所 자료의 실증 분석」 『한국문화』 97(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b).
- 조윤선, 「19세기 의금부의 議律업무와 王獄의 기능」 『민족문화』 58(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21).
- 조정근, 「조선 후기 제주 於道 卞州姜氏家 雇工의 존재 양상 - 강우석 소장 고문서를 중심으로 -」 『탈라문화』 66(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21).
- 진재교, 「朝鮮朝 後期 洋人의 人間 氣質과 그 성격」 『동양한문학연구』 63(부산, 동양한문학회, 2022).
- 진호신, 「태안 신진도 고가(古家) 발견 유물의 종류와 성격」 『해양문화재』 16(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2).

차인배, 「조선후기 '치도형(治盜刑)'의 운영과 폐지 과정 - 포도청(捕盜廳)의 난장(亂杖)을 중심으로 -」 『법사학연구』 63(서울, 한국법사학회, 2021).

채광수,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활동의 실제 - 상주 道南書院의 詩會를 중심으로 -」 『한국서원학보』 12(성남, 한국서원학회, 2021).

채흥병, 「조선(朝鮮)의 대후금(對後金) 관계 추이와 정묘맹약(丁卯盟約)의 의미」 『한국사연구』 193(서울, 한국사연구회, 2021).

\_\_\_\_\_, 「18세기 조선의 '황조인(皇朝人)' 정책과 창원(昌原) 공씨(孔氏)에서 곡부(曲阜) 공씨로의 정체성 변화」 『역사와 현실』 123(서울, 한국역사연구회, 2022).

최경화, 「조선후기 백자 모란문의 연원 및 전개양상」 『한국문화연구』 42(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2).

최성운, 「1863~1866년간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 식민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학』 167(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a).

\_\_\_\_\_, 「극동러시아 당국의 1870·1871년 조선인 강제 재이주정책과 체제선전소문」 『동북아역사논총』 75(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22b).

최성환, 「경종대 신임옥사와 충·역 의리의 귀결」 『민족문화』 58(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21).

최 식, 「日谷 趙得永의 燕行詩 研究」 『민족문화』 57(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21a).

\_\_\_\_\_, 「俞彦鎬의 燕行과 『燕行錄』」 『한문학논집』 58(대전, 근역한문학회, 2021b).

최우혁, 「19세기 진찬의례와 군문의 재정 활용」 『국학연구』 45(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21).

최 연, 「조선 중후기 왕실 도화서 화원들의 불화 제작과 그 영향」 『은지논총』 68(서울, 은지학회, 2021).

최윤희·이은주, 「조선후기 궁중 무고舞鼓 여령복식에 관한 연구」 『국학연구』 49(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22).

최은주, 「申弘望의 유배일기 <長沙日錄>의 특징적 기록 경향과 자료적 가치」 『영남학』 76(대구,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최주희, 「경주 교동 최씨가 소장 秋收記·收稅記 자료의 전존 현황과 특성」 『고문서연구』 59(서울, 한국고문서학회, 2021).

\_\_\_\_\_, 「대동법 시행기 進上制의 정비와 영조대 초반 『進上別單謄錄』의 작성」 『한국사학보』 86(서울, 고려사학회, 2022).

하명준, 「영조대 活人囹圄에 대한 인식과 운영 실태」 『역사문화연구』 79(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21).

- 하여주, 『“계녀서”의 탄생과 ‘조선식’ 유교 젠더 규범의 성립』 『조선시대사학보』 101(서울, 조선시대사학회, 2022).
- 한영기, 『光海君의 즉위 환경과 明의 존재』 『明清史研究』 56(서울, 명청사학회, 2021).
- 한미라, 『18~19세기 전라도 남원 機池坊 笠巖鄉約의 구성원과 운영 변화』 『역사민속학』 62(제주, 한국역사민속학회, 2022a).
- \_\_\_\_\_, 『1864년 삼도수군통제사 백은진(白殷鎭)의 항약 시행에 관한 일고찰』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64(대전,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022b).
- 한바다, 『영조대 義禁府都事의 직제와 구성』 『한국사론』 68(서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22).
- 한보람, 『19세기 경화학계 개혁론의 가치 지향과 현실 대응』 『한국사상사학』 67(서울, 한국사상사학회, 2021).
- \_\_\_\_\_, 『고종의 친정 선포와 정국의 동향』 『한국학논집』 88(대구,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2).
- 한승현, 『正祖 즉위 초기 對淸 외교 정책과 조정의 對淸 인식』 『한국문화』 96(서울,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1).
- 한승훈,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영국』 『한국사연구』 198(서울, 한국사연구회, 2022).
- 한혜선, 『조선 영조대 연향의례 속 도기의 용도와 조달방식』 『한국문화연구』 40(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1).
- 허태구, 『2019~2020년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사료와 실증의 더미에서 탈출하기』 『역사학보』 251(서울, 역사학회, 2021).
- \_\_\_\_\_, 『張晩의 대외정세 인식과 대중국 외교현안 대응』 『대구사학』 146(대구, 대구사학회, 2022).
- 허태용, 『정조대 초기 『영조실록』의 편찬과 정치적 성격』 『한국사연구』 192(서울, 한국사연구회, 2021a).
- \_\_\_\_\_, 『‘성리학 대 실학’이라는 사상사 구도의 기원과 전개』 『한국사상사학』 67(서울, 한국사상사학회, 2021b).
- 허형욱, 『조선 후기 조각승 端應의 造像 活動과 性格에 관한 고찰』 『동악미술사학』 32(김포, 동악미술사학회, 2022).
- 홍정원, 『조선의 울릉도 공도정책(空島政策)에 대한 역사적 검증』 『영토해양연구』 24(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22).
- 홍해뜸, 『조선후기 목민서 『先覺』의 편찬과 수령정치론』 『동방학지』 199(서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2).
- 황유나, 『순조대 경연의 운영과 그 정치적 의미 - 召對·別講을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 100(서울, 조선시대사학회, 2022).

[Abstract]

## Status and challenges of late Joseon research in 2021~2022

- Transitional Efforts to Set a New Direction for Structural History  
Beyond Internal Development Theory -

Choi, Joohee  
(Duksung Women's Univ.)

In this article, we have examined the research trends in late Joseon history published in Korean academia between 2021 and 2022, focusing on major papers.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research achievements by field, we summarize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studies that reconsider or criticize major concepts, that have been viewed through the lens of internal development theory, have been published. Second,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interest in climate crises and disasters has recently increased, papers on epidemics, fuel consumption, and animal ecology have also been published in late Joseon studies. Third, many papers on the history of ideas and culture were published between 2021 and 2022 due to the excavation of literature and artifacts and the revitalization of research in adjacent fields.

Even if the somewhat sporadic individual studies do not paint a coherent picture of the late Joseon Dynasty, if individual case studies would be solidly accumulated, it will be an important nourishment for the structural understanding of Joseon society. However, long-term efforts should be made to create an academic forum for sharing the problems and arguments of the vast amount of empirical research that pours out every year, and also try to create a healthy academic ecosystem that considers the next generation.